

요한계시록 이야기

승리자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4장 12-20절

[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14]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자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2-20절

[15]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16]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17]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에리한 낫을 가졌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2-20절

[18]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19]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20]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천육백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2-20절

- 12절,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는 짧은 쾌락이 길고 끝없는 고통을 준다는 점, 그러나 짧은 믿음의 수고와 인내가 길고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준다는 점을 알라는 말씀이다.
- 계시록은 두 갈래 길 인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그 끝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14장의 내용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2-20절

강화된 두 갈래 길

- 계시록 14장 1-7절은 **좁고 험하지만, 생명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소개**한다.
-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다.
- 고문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상숭배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이다.
-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는 신앙생활로 예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따랐던 사람들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2-20절

-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해변에 서서 새 노래, 승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계 15:2-3).
- 이들은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더위에 쓰러지지 않고, 햇빛에 화상을 입지 않고,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고, 모든 눈물을 씻기고, 구원의 흰옷을 입으며, 승리의 월계관을 쓰게 될 자들이다(계 7:16-17).
- 무엇보다도 이들은 영원한 안식과 행복한 여생이 예정된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2-20절

- 또 8-11절은 **넓고 편하지만, 멸망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소개**한다.
- 이들은 자기들도 **우상숭배를 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우상숭배를 강요했던 자들**이다.
-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자들이며, 유황이 타는 불 못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 고난의 연기로 인하여 **밤낮 쉬을 얻지 못할 자들**이다.
- 그러므로 **성도들이 인내로써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2-20절

- 그리스신화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카론'이란 뱃사공이 태워주는 바닥 없는 소가죽 배를 타고 비통의 강을 건너게 된다.
- 비통의 강을 건너게 되면 그 갈래인 시름의 강이 나오고, 이 시름의 강을 건너게 되면 불의 강(화장)이 나오고, 이 불의 강을 건너게 되면, 망각의 강이 나온다.
- 이 망각의 강을 건너게 되면 너른 벌판이 나오게 되는데, 오른쪽 들판에는 낙원인 엘뤼시온(Elusion, 상젤리제)이 있고, 왼쪽 들판에는 지옥인 타르타로스(Tartaros)가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12-20절

-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상징하는 강을 건너게 되지만, 그 강의 끝은 침례하게 **다른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 낙원 **엘뤼시온**에서는 지복을 누리지만, 지옥 **탈타로스**에서는 형용키 어려운 형벌을 받는다.
- **탄탈로스**는 물속에 몸을 잠그고 있는데도 영원한 갈증에 시달린다. 탄탈로스가 물을 마시려고 입을 대면 물이 달아나 버리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2-20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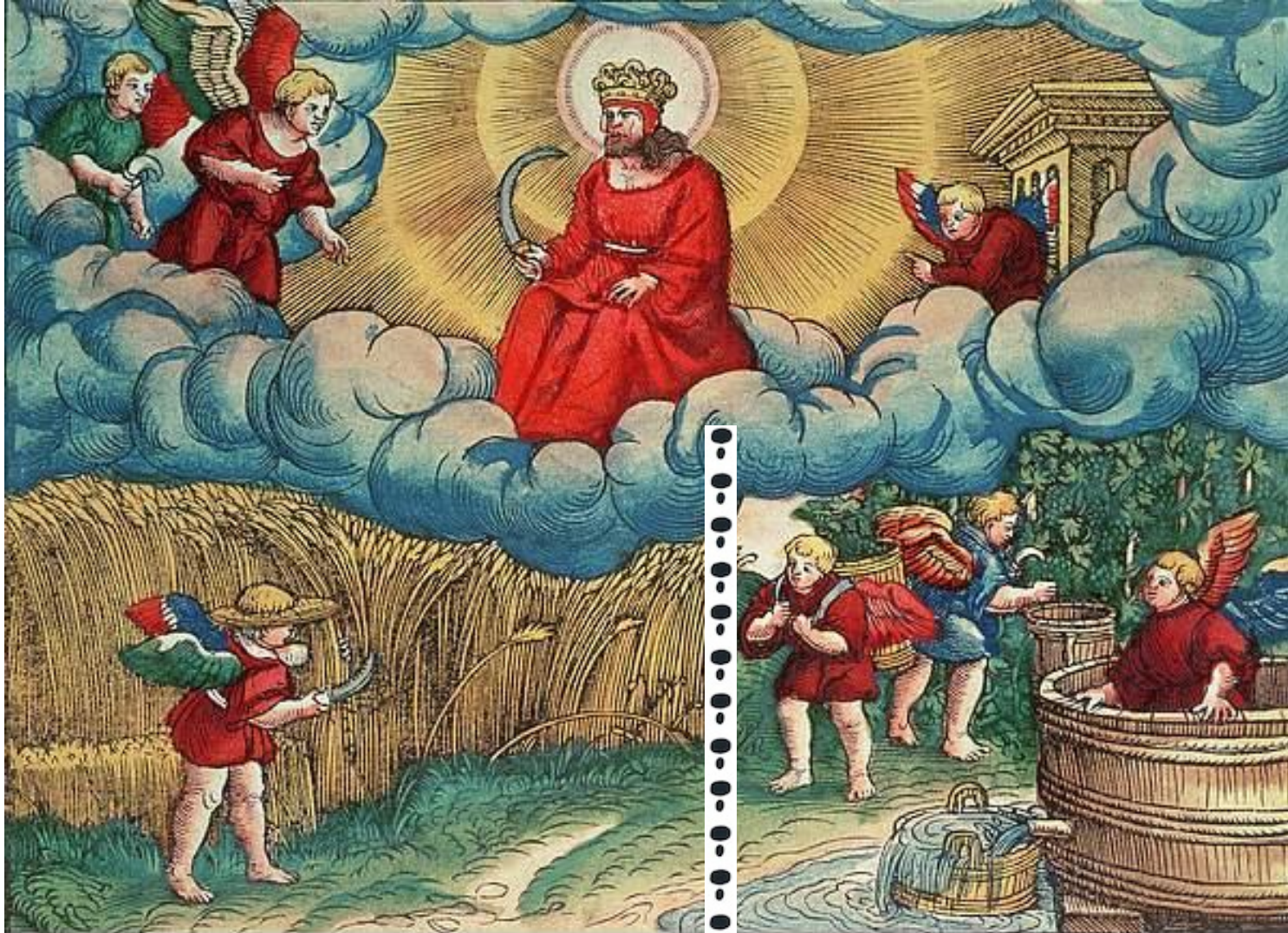
- 익시온은 영원히 도는 불수레에 매달려 비명을 지른다.
- 티튀오스는 독수리의 부리에 살을 파 먹히면서 영원히 소리 지르고,
- 다나오스의 딸들은 밭 빠진 독에다 영원히 물을 길어다 붓는다.
- 시쉬포스는 산꼭대기로 바위를 굴러 올려야 하지만, 바위는 산꼭대기에 도달하기 무섭게 다시 굴러 떨어진다.
- 한마디로 지옥에는 쉽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 13-20절은 각각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향한 대심판을 추수장면으로 보여준 것이다.
- 먼저 13-16절은 '구름 위에 앉은 이'의 알곡추수 장면이고, 17-20절은 심판천사의 포도추수 장면이다.
- 스타디온(→ 스타디움) = 약 190M, 1600 스타디온 = 304KM
- $1600 = 1000 + (100 \times 6)$ = 무한 거짓, 무한 실패, 무한 재앙
- $12000 = 1000 \times 12$ = 새 예루살렘의 길이, 너비, 높이 = 무한 완전, 무한 승리, 무한 축복
- 알곡추수는 영원한 안식의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우는 것이고, 포도추수는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함께 영원한 불 못에 들어가 밤낮 쉬이 없는 고통 속에 들어갈 불신자들을 모우는 것이다.



계시록 14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시온산에 선 144,000명과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와 불을 다스리는 천사를 묘사하였다.



계시록 14장(Luther Bible, 153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Hans Burgkmaier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를 묘사하였다.



게시록 14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를 묘사하였다.

요한계시록 14장 12-20절

- **계시록의 교훈은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이다.**
-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이다.
-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한없이 사단의 발 아래 짓밟히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 다만 때를 기다리실 뿐이다.
- **기다림의 시간은 외롭고, 고달프고, 고통스런 시간이지만, 환희와 기쁨의 시간이기도 하다.** 성도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고, 진리는 마침내 이기고 영원하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2-20절

- **계시록의 특징은 분리와 반복에 있다.**
- **‘분리’라 함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을 철저히 분리시킴을 말한다.
- **예수님의 깃발아래 선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성령의 인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포상을 받으며, **언제나 천상의 백성으로 구별된다.**
- **사탄의 깃발아래 선 자들은** 일시적으로는 이기는 것 같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허깨비에 지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14장 12-20절

강화된 두 갈래 길

- 그들은 언제나 불과 유황과 연기로 타는 불 못의 저주를 받게 될 지상의 백성으로 구별된다.
- **‘반복’이라 함은** 앞서 설명한 ‘분리’가 반복해서 설명된다는 뜻이다.
-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구원에 관한 천상의 환상은 7장과 14장 그리고 21장에서 반복된다.
- 사탄의 백성이 받을 재앙에 관한 지상의 환상도 8-9장과 16장 그리고 17-20장에서 반복된다.

요한계시록 14장 12-20절

- 요한이 이렇게 **‘분리’와 ‘반복’의 형식으로 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성도들에게는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며,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무서움을 보여주어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주님은 계시록 18장 4절을 통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권면하신다.
.....
- 그 밖에도 주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 형태로 권면하신다.

요한계시록 14장 12-20절

- 첫째, 주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또 장차 올 자요,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굳게 믿고서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 이기는 자가 될 것을 권면** 하신다.
- 둘째, 주님께서 폭풍을 잔잔케 하실 교회의 머리 되시며 성도의 구세주 되심을 굳게 믿고서 박해의 폭풍이든 이단의 폭풍이든 생활의 폭풍이든 그 폭풍이 무엇이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을 권면**하신다.

요한계시록 14장 12-20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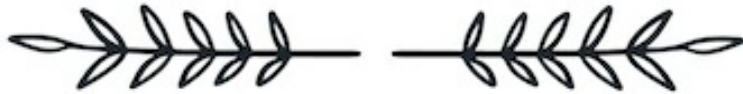
- 셋째,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굳게 믿고서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져 있고,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더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며,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것을 권면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4장 12-20절

- 그리하면 본문의 말씀대로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를 이기고 큰 환난에서 벗어나 하늘 보좌방 앞에 펼쳐진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성가대에 합류하게 될 것이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 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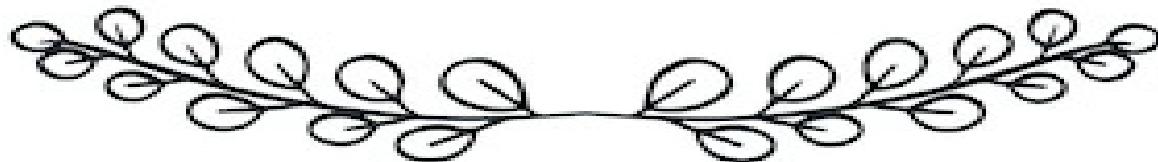
요한계시록 14장 12-20절

- 넷째, 시련이 아무리 길다고 해도 장차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원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축복에 비하면 짧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음을 믿고서 또 탄압하던 자들이 불과 유황과 연기로 영원히 타는 불 못에 들어갈 것을 굳게 믿고서 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약속들이 성취될 것을 굳게 믿고서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소중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신다.**



요한계시록 14장 12-20절

- 그리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 주님은 성도들이 인내로써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13:10, 14:12).
-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승리자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5장 1-8절

- [1]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 [2]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 [3]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요한계시록 15장 1-8절

[4]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기록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5]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6]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 띠를 띠고,**

요한계시록 15장 1-8절

- [7]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 [8]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구원

분리



재앙



노아 때의 대 홍수(저자 미상)
구원의 방주에 오르지 못할 거대한 물바다에 배처럼 허우적거리는
사람들과 안전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여덟십구 사이를 거대한
방주로 분리시켰다.

구원
분리
재앙



주전 1446년 보에 홍해에서 벌어진 대사건(출 15장, 저자 미상)
지옥을 상징하는 붉은 바다, 홍해 속에 갇힌 이집트 마병대와 홍해를
무사히 건넌 후 홍해 해변에 서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히브리인들
사이로 거대한 파도로 분리시켰다.



재앙
분리
구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John Martin, 1852, 링미술관 소장)
링미술관(Laing Art Gallery)은 영국 뉴캐슬어폰타인(Newcastle upon Tyne) 시에 있다. 유황불 비가 내리는 소돔-고모라성과 롯과 그의 두 딸이 피신한 안전한 소알성 사이를 번개로 분리시켰다. 번개가 땅에 닿는 지점 아래에 분리를 상징하는 천사가 서있다.

요한계시록 15장 1-8절

일곱 대접재앙

- 바다는 음부 곧 죽음의 세계를 상징한다.
-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나팔과 대접의 재앙들이 펼쳐지는 지옥이다.
- 계시록 15장 1절은 **일곱 대접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다.
-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는 계시록의 재앙들에 어떤 시간차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하는 구절이다.

요한계시록 15장 1-8절

- **대접재앙**은 시간차를 두고 나팔재앙에 뒤따라오기 때문이고, 재앙의 강도도 차이가 나고, **‘마지막 재앙’**이란 언급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교: 애굽의 열 가지 재앙.
- 계시록은 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으로 시간차를 두고 이어지는 시대별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계시록은 천상과 지상의 분리와 사건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回復)과 반전(反轉), 신실한 믿음과 인내의 절대적 필요성, 다가올 대심판의 긴박성을 알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선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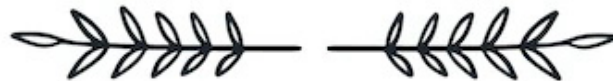
요한계시록 15장 1-8절

- 2-4절은 16장에 소개된 일곱 대접재앙에 연결해서 또 일곱 대접재앙은 출애굽기 15장과 연결해서 이해될 수 있는 장면이다.
-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난 노도에도 불구하고 흥해를 건넌 후에 홍해 해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출 15장),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5장 1-8절

- 그들이 부른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에서 부른 노래와 근본적으로 내용이 같다.
- **3-4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기록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구원 사역**



요한계시록 15장 1-8절

일곱 대접재앙

- 그 반대의 장면도 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성이 불과 유황과 연기 속에서(창 19장), 노아시대의 불경한 자들이 범람하는 홍수 속에서(창 6-8장), 삼손을 희롱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아래서 큰 재앙을 당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던 이집트의 마병대가 홍해의 거친 파도 속에서(출 15장) 재앙을 당하는 장면이 계시록 16장에 소개된 대접재앙들과 관련이 있다.
- 계시록에서는 이 사건들이 지옥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요한계시록 15장 1-8절

- 일곱 대접재앙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속에서 벌어지는 장면의 연출이라고 볼 수 있다.
- 그것은 마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해변에 서서** 붉은 바다 속에서 벌어지는 처참한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 것과 같이, 천상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속은 **지옥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5장 1-8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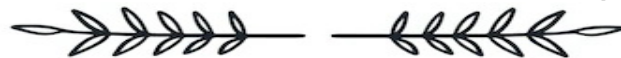
일곱 대접재앙

- 5-8절은 일곱 대접재앙을 예비하는 장면이다.
-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은 지상 성막의 원형이기 때문에,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일곱 천사들은 일곱 제사장들**, 곧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들은 여리고 성 전투 때 일곱 나팔을 가졌던 일곱 제사장들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 그들이 나팔 대신에 강도가 훨씬 센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케루빔으로부터 받고 있다.

요한계시록 15장 1-8절

일곱 대접재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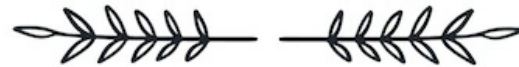
- 그리고 금 대접에 담긴 것은 재앙의 불로 볼 수 있다.
- 민수기 16장에 소개된 불행한 사건, 즉 불이 담긴 향로에서 불과 불티가 나와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과 계시록 8장 5절에서 천사가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던 것에서 볼 수 있다.
- ‘불이 섞인 유리 바다’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붉은 바다라는 뜻을 가진 **홍해**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불과 유향으로 붉게 타오르는 **소돔성의 불바다**와 같은 것이다.



요한계시록 15장 1-8절

일곱 대접재앙

- 먼 옛날 이스라엘 민족은 **짐승**이랄 수 있는 **바로**와 그를 돕는 **박사들과 군사들**을 이기고 벗어나 **홍해 해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성도들이 지옥의 불바다를 연상하게 하는 **하늘의 붉은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후에 **붉은 바다 홍해 해변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 가운데서 몇 절만 읽어보자.**



요한계시록 15장 1-8절

일곱 대접재앙

-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요한계시록 15장 1-8절

일곱 대접재앙

-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으로다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5장 1-8절

일곱 대접재앙

- 이들 노래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후에 하늘나라에서 부를 승리의 노래인 것이다.
- 우리는 성도들의 목자가 되시는 어린양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 예수님을 이길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 그분의 위엄과 권세는 이미 계시록 1장에서 인자의 환상으로 나타난 바가 있다.

- 계시록 4-5장의 보좌방의 환상에서 보듯이, 우주의 주인이시며, 우주를 지배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하신다.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승리자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6장 1-21절

- [1]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 [2]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 [3]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 [4]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21절

[5]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기록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6]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7]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8]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요한계시록 16장 1-21절

[9]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0]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12]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테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21절

[13]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5] 보라 내가 도둑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6장 1-21절

[16]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17]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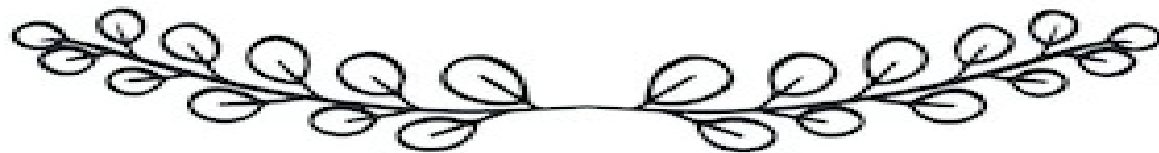
[18] 번개와 음성들과 우렛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21절

[19]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20]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 데 없더라.

[21] 또 무계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요한계시록 16장 1-21절

일곱 대접재앙

- 계시록 16장은 일곱 대접재앙에 관한 말씀이다.
- 여기서 재앙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 문제의 심각성은 쉽사리 회개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 계시록에서의 나팔과 대접재앙들은 출애굽사건 당시 모세가 이집트에 내리게 했던 열 가지 재앙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 열 가지 재앙들 중에 빠진 세 가지에 대한 암시는 13절에 있는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에 있다.

앙크(Ankh)
생명의 열쇠
생명 유지력
부활의 능력
신성의 표시



고대 이집트에서 개구리로 묘사되는 다산의 여신 헤케트(Hehet).
중중 나일강의 수호신(번영) 크눔(Khnum)의 부인으로 묘사된다.

요한계시록 16장 1-21절

일곱 대접재앙

- 이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은 각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 이것들은 이미 앞에서 그 하나를 ‘개구리’로 지적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파리’와 ‘이’이다.
- 계시록에서는 숫자 ‘일곱’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열 가지 가운데 세 가지를 용인 사단(파리 대왕, 바알세불)과 짐승인 제왕(개구리)과 사제인 거짓 선지자(이)의 더러운 영에 비유하였다.



계시록 16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일곱 대접재앙을 묘사하였다.

요한계시록 16장 1-2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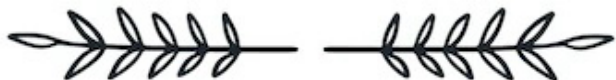
일곱 대접재앙

- 요한은 복음서에서도 이 세 가지 재앙을 뺀 나머지 일곱 개의 재앙들에 상반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살림의 기적 일곱 개를 소개하고 있다.
- ● 첫 번째 대접 (2절)에서는 지상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난다. 출애굽기 9장 8절에 나오는 '독종'재앙에 비교된다.
- ● 두 번째 대접 (3절)에서는 바다가 피가 되고, 모든 생물이 죽는다. 출애굽기 11-12장에 나오는 '죽음'재앙에 비교된다.

요한계시록 16장 1-21절

일곱 대접재앙

- ● 세 번째 대접 (4절)에서는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된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 나오는 '피'재앙에 비교된다.
- 이 세 대접들을 땅에 쏟고 난 다음에 '물을 차지한 천사'와 **제단**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있다. 심판이 정당하고 의롭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 제단=순교의 상징(계 6:9-11)



요한계시록 16장 1-21절

일곱 대접재앙

- ● 네 번째 대접 (8-9절)에서는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 나오는 '불'재앙에 비교된다.
- 모세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도 오히려 마음을 더욱 강박케 하였던 바로처럼 불경한 자들은 오히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는 커녕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 ● 다섯째 대접 (10-11절)에서는 짐승의 왕좌에 어둠과 종기의 고통이 온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 나오는 '흑암'재앙에 비교된다.

요한계시록 16장 1-21절

일곱 대접재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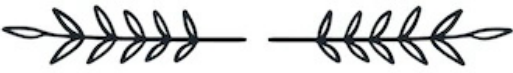
→ ● 여섯째 대접 (12-16절)에서는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버린다(비교: 홍해가 갈라져 길이 열린 것). 세 더러운 영(개구리, 이, 파리)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 전쟁을 예비한다.

● 출이굽기 8장 1절 이하에서 보듯이, 사탄의 영을 가진 바로는 거짓 선지자들인 박수들과 함께 재앙을 당하면 당할수록 이스라엘 민족을 더욱 압박하는 정책을 썼고,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한 후에는 마병대로 하여금 추격케 하였다.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예비했던 것이다.

요한계시록 16장 1-21절

일곱 대접재앙

- 계시록 16장 12-16절에 ‘아마겟돈,’ ‘유프라테스 강’과 ‘동방에서 오는 왕들’에 관한 단어들 등장한다. 여기서 ‘아마겟돈’은 우리말로 ‘므깃도 산(하르)’ 혹은 ‘므깃도 언덕(텔)’이란 뜻이다.

- ● 일곱째 대접 (17-21절)에서는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다 이루었다.” (It is done!)고 하셨고,
- 

요한계시록 16장 1-21절

일곱 대접재앙

- 또 큰 지진이 나서 만국의 성들은 물론이고, **큰 성 바벨론**, 곧 로마제국도 무너지고, 섬과 산악이 사라졌으며, **34킬로그램 무게의 우박**이 쏟아지는 엄청난 재앙이 내렸지만, 불경한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치 않았다. **출애굽기 9장 13-21절**에 나오는 **‘우박’재앙**에 비교된다.
- **큰 성 바벨론=하나님의 백성의 유배지**

요한계시록 16장 1-21절

일곱 대접재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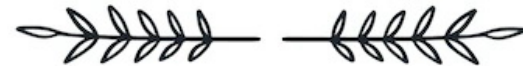
- ● **므깃도**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요새이자 길목이다. 역사적으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이곳에서 치러졌다.
- 갈멜산 북쪽 이스라엘 평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점령한 사람이 곡창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다.
- 또 **므깃도**는 이집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잇는 지중해 해변도로인 '비아 마리스'(Via Maris)를 차단할 수 있는 길목이어서 크고 작은 전투가 치러졌던 곳이다.
- **므깃도=천개의 도시보다 더 중요한 요새**

아마겟돈
Har Megido
므깃도 언덕
전략 요충지



요한계시록 16장 1-21절

- 드보라가 바락과 더불어 가나안왕 하솔의 군대장관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격파한 곳이고(삿 5:19-21), 예후가 남유다왕 **아하시야(아합의 딸 아달라와 여호람 왕의 막내아들)**를 죽인 곳이며(왕하 9:27), 요시아가 이집트의 느고 2세를 가로막다가 전사한 곳이다(왕하 23:29-30, 609 BC). 팔레스타인 땅을 넘보던 이집트, 아시리아 등의 대국들이 이곳에서의 혈투를 피해가지 못했다. 솔로몬은 이곳에 450여 마리의 말과 150여대의 전차를 수용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시설(Stables)을 갖추놓고 **전차부대를 주둔**시켰다.



요한계시록 16장 1-2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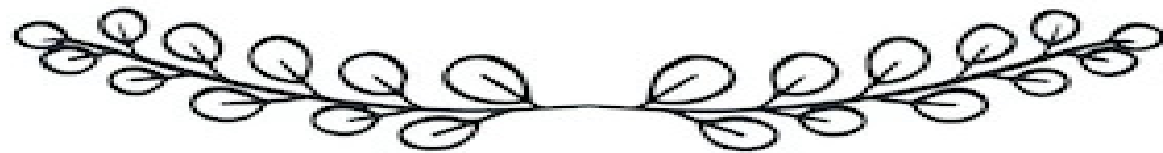
- ● **므깃도는 영적인 전쟁터의 상징이다.**
- ● **아마겟돈은 용으로 상징된 사탄과 짐승으로 상징된 칼의 권세자인 박해자(666)와 그의 앞잡이인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로 뭉친 악한 영들이 집결하여 최후까지 극악무도하게 발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하는 영적 전쟁터**



요한계시록 16장 1-21절

- 그러므로 15절에서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보라. 내가 도둑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승리자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6장 12-16절

[12]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에비**되었더라.

[13]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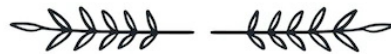
[14]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2-16절

[15] 보라 내가 도둑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6]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Har-magedon





계시록 16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일곱 대접 재앙의
환상을 묘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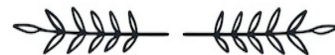


계시록 16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에게 내리는" 일곱 번째 대접재앙(17-21절)을 묘사하였다.

요한계시록 16장 12-16절

일곱 대접재앙

- 여섯 번째 대접재앙은 여섯 번째 나팔재앙에서처럼 **유프라테스**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 여섯 번째 나팔재앙에서는 큰 강 유프라테스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자 사람 삼분의 일이 **불과 연기와 유황을** 품어내는 **말과 2억의 마병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 여섯 번째 대접재앙에서는 유프라테스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통로가 열리고, **세 더러운 영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제왕들을 **므깃도**에 집결시킨다.



세계에서
8번째로
거대한
아타튀르크 댐



1981년에 착공된 아타튀르크 댐
터키가 유프라테스강을 막아 만든 댐이다. 터키가 자국의 강들에 댐들을
건설함으로써 시리아와 이라크가 물 부족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다. 이것을 예언한 것이 계시록 16장 12절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아라라트 산 수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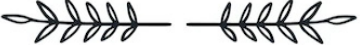



아타튀르크크 댐



요한계시록 16장 12-16절

일곱 대접재앙

-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면 **동방의 왕들을 위한 길이 열린다는** 뜻은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시리아 쪽으로의 **서진(西進)**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므깃도**는 시리아 남쪽 사마리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 **유프라테스 강**은 로마제국의 동쪽 시리아 **국경지대의 강**으로써 **동서양을 구분하는 지리적 분기점**이다. 

요한계시록 16장 12-16절

일곱 대접재앙

- 그 강 동편, 곧 유프라테스에서 인더스 강에 이르는 전역에 활쏘기의 명수인 **파르티아**인들이 있었다.
- 유프라테스 강물이 마른다는 뜻은 로마제국의 방위선이 붕괴된다는 뜻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로마인들은 파르티아 왕들을 두려워했고, 그들과 싸운 62년 전투에서는 패배를 맛보았다.
- 그렇다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16장 12-16절

일곱 대접재앙

- 해석자들의 대부분은 이들을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들' 곧 귀신의 영들이 이적을 행하여 아마겟돈에 집결시킨 왕들로 보는 견해가 있고,
- 드물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천군천사들로 보는 견해도 있다.

-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여섯 번째 대접재앙, 곧 심판과 저주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악한 영들을 정벌하기 위한 연합군으로 봐야 한다.



요한계시록 16장 12-16절

일곱 대접재앙

- 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로마인들이 두려워한 파르티아의 왕들이라면, 17절 이하의 말씀처럼, 철저하게 붕괴될 '큰 성 바벨론' 곧 박해세력 로마제국을 정벌하기 위한 연합군으로 봐야 한다.
- 이 같은 것은 영적 전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의 전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이 최후 승리를 대미로 장식하게 될 것을 보여줄 뿐이다.

요한계시록 16장 12-16절

일곱 대접재앙

-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나팔재앙과 일곱 대접재앙은 히브리인들의 출애굽 당시 모세가 일으켰던 10가지 표적들 가운데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을 뺀 **일곱 개의 표적들에** 모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요한복음**에서 소개한 예수님의 **일곱 가지 표적들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일으켰던 10가지 표적들에서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을 뺀 **일곱 개의 표적들에** 모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요한계시록 16장 12-16절

일곱 대접재앙

- 요한복음 전반부의 내용은 계시록과 마찬가지로 변화와 회개가 주제이다.

- 모세와 율법은 예수님과 복음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요한복음에서 모세와 율법은 흑암과 죽음을, 예수님과 복음은 빛과 생명을 뜻한다.

- 율법에서 복음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와 회개가 요한복음과 계시록이 주는 메시지이다.

- 요한은 이 메시지를 숫자 7로 전하였다.

요한계시록 16장 12-16절

일곱 대접재앙

- 숫자 7은 빛과 생명을, 숫자 6은 모세와 율법, 곧 마이너스 1(-1)를 상징하며, 숫자 8은 예수님과 복음, 곧 플러스 1(+1)을 상징한다.
-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빛과 생명으로 상징되는 변화를 강조**하는 것들이면서 **모세의 표적들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또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의 거짓 표적 혹은 모방 표적들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6장 12-16절

일곱 대접재앙

- **첫째**, 예수님은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는데(요 2:1-11), 이 표적의 의미는 유익하고 건설적인 변화, 분위기 쇄신, 넘친다(+1)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모세는 물을 피로 변화 시켰는데(출 7:14-24), 그의 표적의 의미는 해를 끼치는 파괴적 변화, 분위기 침체, 또는 부족하다(-1)는 의미를 갖는다.
- **둘째**,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다(요 4:46-54). 유대인 니고데모, 사마리아인 여성, 이방인 왕의 신하한테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중생의 체험이 나타난다.

요한계시록 16장 12-16절

일곱 대접재앙

- 믿음과 중생이 남녀노소, 민족, 신분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모세는 가축을 죽게 하는 표적을 행한다(출 9:1-9). 이 두 표적의 특징은 주인이 직접 축복이나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그 소유물이 받는다는데 있다.
- 셋째,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요 5:1-18). 이 표적은 개인의 고통을 고친 첫 번째 표적에 해당된다.

요한계시록 16장 12-16절

일곱 대접재앙

- 이 표적에서 나타난 특징은 복음적 사고(思考), 유신론적 창조사고, 살림과 열림의 사고에 있다.
-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언제나 살림의 일을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온몸에 독종이 나게 한 표적을 행하였다(출 9:8-12). 이 역시 몸에 고통을 준 첫 번째 표적에 해당된다. 이 표적의 특징은 율법적 사고(思考), 무신론적 파괴적 사고, 죽임과 닫힘의 사고와 죽임의 일에 있다.

요한계시록 16장 12-16절

일곱 대접재앙

- 넷째,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생선 두 마리로 빈들에서 장정만 오천 명을 먹이셨다(요 6:1-15). 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먹게 한 것과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가루통과 기름병의 가루와 기름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하지 않게 한 표적들의 원형이다. 이는 예수님을 믿으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하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는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모세는 이집트인들에게 메뚜기 재앙(출 10:1-20)을 내림으로써 기근을 촉발시켰다.

요한계시록 16장 12-16절

일곱 대접재앙

- 다섯째,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요 6:16-21). 이 표적의 특징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폭풍이 몰아치는 죽음의 위기에서도 건짐을 받는다는데 있다. 반면에 모세는 이집트에 뇌성과 우박 재앙 곧 자연재해(출 9:13-15)를 내리게 했다.
- 여섯째, 예수님은 타고난 맹인을 고치셨다(요 9:1-7). 예수님은 빛을 주시는 분이시다.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 그러나 모세는 이집트에서 흑암재앙(출 10:22-23)을 내리게 하였다.

요한계시록 16장 12-16절

일곱 대접재앙

- **일곱째**,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다(요 11:17-44).
예수님은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죽음에 생명을, 슬픔에 기쁨을 주신다. 반면에 모세는 이집트에서 장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출 11-12장). 생명에 죽음을, 기쁨에 통곡을 주었다.

요한계시록 16장 12-16절

-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율법을 복음으로, 혼돈을 질서로, 흑암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밝혔는데,
-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무리의 박해를 이기고 영생을 얻는 길임을 밝히고 있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승리자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7장 1-18절

[1]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2]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3]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요한계시록 17장 1-18절

[4]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하였더라

[6]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요한계시록 17장 1-18절

[7]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8]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9]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요한계시록 17장 1-18절

[10]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11]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2]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17장 1-18절

[13]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4]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15]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요한계시록 17장 1-18절

[16]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7]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18]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루터 시대(독일)에
교황을 음녀로
봤다는 정황

계시록 17장(Luther의 신약성서, 152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CRANACH, Lucas the Elder의
공방에서 만든 계시록의 삽화 2장 가운데 하나이다. 일곱 머리
의 붉은 짐승을 탄 큰 성 바벨론의 큰 음녀의 머리에 삼중관을 씌움으로써
음녀가 가톨릭 교황이라는 점을 암시하였다.



교황 그레고리 16세(Gregory XVI, 1831~1846)의 삼중관.
상층에는 "VICARIUS", 중층에는 "FILII", 하층에는 "DEI"라고 새겨
"하나님의 대리자"를 자처했다.



1871년 벨지움에 의해 교황 비오 9세에게 바쳐진 삼중관,
라틴어로 상층에 CHRISTI VICARIO(그리스도의 대리자, Christ's Vicar),
중층에 IN TERRA(땅 위에, On Earth), 하층에 REGVM(왕들, Kings)이라고 새겼다.



계시록 17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일곱 머리 열 벌 짐승을
탄 큰 성 바벨론의 큰 음녀를 묘사하였다.



계시록 17장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Anthuenis claei-
ssins (Flemish, 1536-1613)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큰 바벨론의 큰 음녀가 일곱 머리 열 벌 짐승을 탄 모습이다.

요한계시록 17장 1-18절

큰 음녀의 받을 심판

- 계시록 17장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음녀와 그들이 받게 될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
- 1절에서 ‘많은 물’은 음부 또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상징이다.
- 15절에서 천사가 설명하기를,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고 하였다.
-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세계의 패권을 쥔 로마제국을 의미한다.

요한계시록 17장 1-18절

큰 음녀의 받을 심판

- 18절에서 천사가 설명하기를,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하였다.
-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들을 신격화시켜 황제숭배를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극형에 처했다.
- 2절의 ‘**땅의 임금들**’은 로마제국의 지배아래 있는 **왕들**로써 황제숭배를 앞장서서 권장했던 자들이고, ‘**땅에 사는 자들**’은 황제숭배를 피해갈 수 없었던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17장 1-18절

큰 음녀의 받을 심판

- 그러므로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처럼 음행을 마시고 취했던 자들이다.
- 이것은 로마의 영향으로 인해 제국의 광범위한 통치지역 전체가 **황제숭배** 및 **우상숭배**에 빠졌음을 의미한다.
- 이 상황을 보충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12-13절이다. **열** **빨로 상징된 땅의 임금들이 짐승으로 상징된** **로마황제로부터 왕의 권세를 받아** 한 뜻을 품고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악용하여 짐승으로 상징된 황제를 섬기며 그리스도교를 대적한다.

요한계시록 17장 1-18절

- 그러나 14절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것이다.”고 선언하였다.
- 싸움의 결과가 하나님과 어린양과 성도들의 승리로 끝날 것을 명확히 밝힌 말씀이다.
- 어린양을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표현한 것은 ‘땅의 임금들,’ 곧 지중해연안의 수많은 나라들을 거느렸던 로마황제보다 그 권세와 능력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만왕과 만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짐승 (로마 황제) = 만주의 주, 만왕의 왕

● 승패의 갈림

어린 양과 그의 왕국(교회) 백성 = 승리, 영광

짐승과 그들의 왕국(로마제국) 백성 = 멸망, 저주

● 승패의 원인

그리스도의 나라의 승리, 교회들에 의해서

짐승 로마제국의 멸망, 열국과 방언들에 의해서(16절)

요한계시록 17장 1-18절

- 3절의 '여자'는 1절의 '큰 음녀'와 동일인물로서 로마제국을 말한 것이며, 그 여자가 탄 '붉은 빛 짐승'은 로마와 땅의 임금들을 말한다.
-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것은 로마황제를 신이라 주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짐승에게 있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은 로마와 땅의 임금들을 상징한다. '일곱 머리'는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로마시를, '열 뿔'은 '땅의 임금들'을 상징한다.

요한계시록 17장 1-18절

큰 음녀의 받을 심판

- 4절에서 ‘여자가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와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로마의 사치와 음란과 타락**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 5절의 ‘이마에 적힌 이름,’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는 표현들은 **‘여자’가 로마제국**을 상징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 **‘이마에 적힌 이름’**은 로마의 창녀들이 이마의 머리띠 위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는 풍속에서 가져온 표현이다.

요한계시록 17장 1-18절

큰 음녀의 받을 심판

- ‘큰 바벨론’은 18절,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로마를 말한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는 당시 로마가 세계의 모도(母都) 즉 메트로폴리스(metropolis)였기 때문이다.
- 6절에서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는 것은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때에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다는 것을 뜻한다.
- 계시록 17장 7-18절은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밝히고 있다.

요한계시록 17장 1-18절

큰 음녀의 받을 심판

- 17장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는 13장 3-4절의 반복이다.

요한계시록 17장 1-18절

큰 음녀의 받을 심판

-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은 네로가 죽어서 도미티아누스로 환생했다는 전설에 따른 것이다.
- 이것은 어린양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모방한 것인데도 멸망 당할 자들은 이 거짓 능력을 두려워하여 추종한다.
-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지 언정 그를 따르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17장 1-18절

- 전설에 따르면, 네로가 죽기 직전 동방 파르티아에 숨었다가 재기의 기회를 노렸다는 말이 있다. 일부 신학자들은 11절의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는 말과 13장 3절에 나오는 ‘상처를 입었다 나온 짐승’에 대한 언급이 이 신화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사실여부를 떠나서 도미티아누스는 가장 강력하게 신성(神性)을 주장한 황제이고, 기독교 박해자였기 때문에 네로가 살아서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7장 1-18절

큰 음녀의 받을 심판

- 9절의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는 일곱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로마시를 말한다.
- 10절의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는 초기 로마의 황제들을 말한다.
- 망한 다섯째는 네로이고, 지금 있는 여섯째는 베스파시아누스다. 그러나 지금 있는 여섯째가 네로를 암시한 것일 수도 있다.

요한계시록 17장 1-18절

큰 음녀의 받을 심판

-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는 앞서 설명한대로 죽은 네로가 여덟째 황제인 도미티아누스로 환생할 것이라는 암시이다.
- 이런 표현 때문에 학자들은 계시록을 도미티아누스를 알고 있던 사람이 황제 사후인 주후 96년에 썼을 것이라고 본다.

요한계시록 17장 1-18절

큰 음녀의 받을 심판

- 12-18절 전체를 살펴보면, 짐승으로 상징된 로마황제와 열 뿔로 상징된 땅의 임금들이 연합해서 황제숭배를 강요하고, 14절의 말씀대로, 어린 양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의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어린 양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이 이길 수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부르심을 받고 백하심을 입은 성도들을 이기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17장 1-18절

- 오히려 그들은, 16-17절의 말씀대로, 로마제국을 말아먹게 된다. 16절은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고 하였다.
- 나라를 살리고, 발전시켜야 할 황제와 제왕들이 오히려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다.
- 그 이유는 1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인하여, 그들의 뜻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제국을 망하게 할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7장 1-18절

큰 음녀의 받을 심판

- 실제로 로마의 황제들은 10여 차례 이상 극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말살시키려 했지만, 그럴수록 제국은 몰락의 길을 달리게 되었고, 박해자들은 단명하였으며, 사치와 쾌락의 노예들이 되었다.

- 결국에는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되고, 주후 400년이 되기 전에 로마제국이 그리스도교의 영향아래 놓이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승리자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8장 1-24절

- [1]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 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 [2]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 [3]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8장 1-24절

[4]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5]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6]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 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요한계시록 18장 1-24절

[7]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8]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9]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요한계시록 18장 1-24절

[10]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1]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12]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요한계시록 18장 1-24절

[13]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14]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15]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요한계시록 18장 1-24절

[16]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17]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18]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요한계시록 18장 1-24절

[19]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20]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8장 1-24절

[21] 이에 한 힘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22] 또 거문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 18장 1-24절

[23]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24]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계시록 17장 1-18절(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고, 큰 바벨론의 큰 음녀가 일곱 머리 열 벌 짐승을 탄 모습이다.



계시록 17장 1-18절(Luther Bible, 153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Hans Burgkmair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고, 큰 바벨론의 큰 음녀가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을 탄 모습이다.



계시록 18-19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주의 재림을 묘사하였다.

요한계시록 18장 1-24절

큰 음녀의 받을 심판

- 계시록 18장은 큰 음녀로 상징된 **로마제국의 몰락**을 적나라하게 묘사하였다.
- 로마제국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황제숭배와 기독교 탄압**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1-3절은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된 **로마의 멸망과 원인**을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설명하였다.
- **첫째는** 로마에 **악령이 들끓었다**는 점;
- **둘째는** 영적 음행인 **황제숭배강요가 있었다**는 점;

요한계시록 18장 1-24절

- 셋째는 육적 음행인 쾌락과 방탕을 일삼았다는 점;
- 넷째는 사치와 탐욕이 가득했다는 점이다.
- ‘로마’란 제목의 HBO제작 DVD시리즈를 보면, 이런 정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로마제국 몰락의 큰 몫이 사치와 쾌락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 시리즈는 율리우스 시저 때부터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 때까지를 다룬 역사물이다.
-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다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의 시대정황이 칙흑 같은 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한계시록 18장 1-24절

큰 음녀의 받을 심판

- **그렇더라도** 계시록의 기록목적은 로마제국의 멸망과 몰락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만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다.**
- **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18장 1-24절

큰 음녀의 받을 심판

- 이 말씀은 계시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준다. **죄에 참여하지 말고 빨리 멸망 당할 장소에서 나오라는 것이다.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것이다. 노아의 외침,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사자의 외침, 니스웨를 향한 요나의 외침이 바로 계시록의 외침이다.**
- 5-8절은 죄를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로마의 교만과 패망에 대한 말씀이다.

요한계시록 18장 1-24절

큰 음녀의 받을 심판

- 죄와 사치와 교만함이 하늘에 미쳤고, 자기를 높여 영광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였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갑절로 갚으실 것이며,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로 재앙을 내려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 성경 66권 전체는 회개와 회복에 관한 글이다.
- 지은 죄와 허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회개하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상실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미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모두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 1-24절

큰 음녀의 받을 심판

- 9-10절은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로마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가슴을 치면서 울고, 그의 고통이 무서워서 멀리 서서” 탄식한다고 표현하였다.
- 나머지 구절들은 경제가 파탄 나고 무역이 끊기고, 상공이 폐쇄되고, 심지어 혼사도 없어 대가 끊김으로써 땅의 상인들과 무역업자들이 로마를 위하여 울고 애통해 한다는 내용이다.

요한계시록 18장 1-24절

큰 음녀의 받을 심판

- 20절은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권면한다.
- 21-24절은 ‘**큰 성 바벨론**’이 크게 망할 것을 보충해서 설명하였다.
- 22절은 음악이 끊기고, 상업 공업 농업이 사라진 것을 보여준다.

요한계시록 18장 1-24절

큰 음녀의 받을 심판

- 23절은 등불이 꺼지고, 혼사가 끊긴 것을 보여준다. 이유는 상인들이 땅의 왕족이 되어 사치와 쾌락을 일삼고, 온갖 미신과 우상숭배로 만국을 미혹했기 때문이다.
- 24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여 피를 흘리게 하였기 때문이다.

계시록 17-18장이 주는 교훈

세상의 것은 매혹적이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일시적이고 패망할 것이고,

하늘의 것은 약하게 보이고, 별 볼일이 없어
보여도 참 안식과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란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승리자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9장 1-21절

[1]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3]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4] 또 이십사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요한계시록 19장 1-21절

[5]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6]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요한계시록 19장 1-21절

[8]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9]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0]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21절

[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21절

[15]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7]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18]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19]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21]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은 죽으며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계시록 18-19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주의 재림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19장(Hortus Deliciarum, c. 1180)
12세기의 수녀 Herrad von Landsberg가 독일어와 라틴어로 필사한 중세기 최초의 백과사전(Hortus deliciarum, 쾰른거류의 정원)에 담긴 그림이다. 큰 성 바벨론의 음녀와 두 짐승이 붙잡혀 불못에 던져지는 환상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19장(Luther의 신약성서, 152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CRANACH, Lucas the Elder의
공방에서 만든 계시록의 삽화 21장 가운데 하나이다. 큰 성 바벨론의
음녀와 두 짐승이 붙잡혀 불못에 던져지는 환상을 묘사하였다.

요한계시록 19장 1-21절

네 번의 할렐루야와 어린양의 재림

- 계시록에는 구속함을 얻은 십사만 사천과 큰 무리가 부르는 '새 노래' 또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5장 9절, 14장 3절, 15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다.
- 이 노래들은 한 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들이다.
- 구원의 노래들의 백미는 19장에 나오는 네 번의 할렐루야이다. 헨델은 이 부분을 '메시아'에서 장엄하게 그려내고 있다.

요한계시록 19장 1-21절

네 번의 할렐루야와 어린양의 재림

- 19장 1절의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은 계시록 4-5장에 나오는 네 생물, 24장로들, 천군천사들, 7장과 14장에 나오는 구원받은 ‘십사만 사천과 큰 무리’가 부르는 연합성가대의 찬양이다.
- 이들이 세 차례 ‘할렐루야’를 외치며 노래하고 있다.



찬양의 특징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어린양의 손에서 결정된다

- 19장 1절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 7장 10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다.”
- 12장 10절,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 이 찬양은 큰 환란을 겪었던 사람들이 체험한 신앙고백이다.



찬양의 특징

인간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과 어린양의
손에서 결정된다

- 하나님만이 인간의 구원자이시다.
-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가 없다.
-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전능자이시다.
- 하나님은 자기 종들의 흘린 피를 보복하신다.”
- 이 신앙고백이 신구약성경 66권 전체의 핵심이다.





1611 킹 제임스 성경

1611 King James Bible

요한계시록 19장 1-21절

- 이 신앙고백은 체험에 의한 신뢰할만한 것이다.
- 옳은 팀, 이길 팀, 비록 지금은 밀리고 있고,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후승리를 거머쥐게 될 팀, 우승반지를 끼게 될 팀, 우승컵에 입 맞추게 될 그리스도의 팀에 소속하라는 강한 메시지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21절

네 번의 할렐루야와 어린양의 재림

- 3절의 두 번째 할렐루야는 일종의 ‘천상의 앙코르’(A. T. Robertson)이다. ‘큰 음녀’의 파멸이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이다. 이 완전하고 영원한 파멸을 묘사한 것이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이다.
- 4절의 “아멘 할렐루야”는 이십사 장로와 네 생물의 화답송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21절

네 번의 할렐루야와 어린양의 재림

- ‘할렐루야’는 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뜻이다.
- 계시록에서 표현한 ‘보좌의 음성’은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말한다.
- 보좌를 상징한 법궤는 두루마리 성경을 보관하던 곳이므로, 보좌의 음성=하나님의 음성=성경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다.



- 6-8절은 네 번째 할렐루야이자, 하늘에 허다한 무리, 곧 천상의 연합성가대가 큰 음성으로 부른 노래이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나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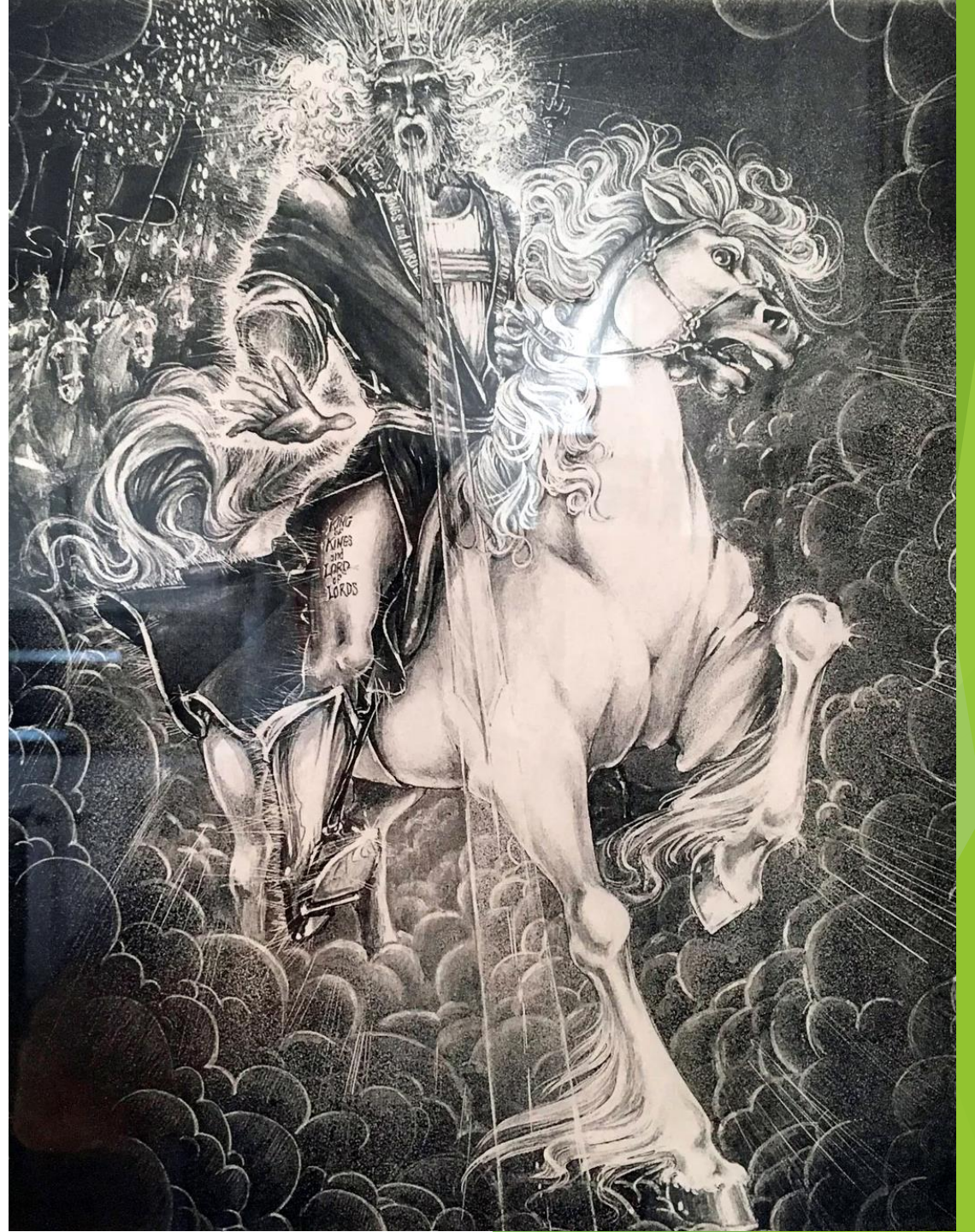
요한계시록 19장 1-21절

-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말씀은 어린양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끝까지 정절을 지키는 신실한 신자 ‘성춘향들’을 구출하여 백년가약을 맺기 위해서 지상세계로 출두할 그리스도의 재림이 멀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는 말씀은 성도들이 지키는 신앙의 정절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21절

- 9절은 믿음의 정절을 최후까지 지킨 성도들이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초대받는 것처럼 이 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이다.
- 10절은 우리 성도들이 최후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섬겨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하신 것을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다.
- 11절의 **백마탄 자는 어린양 그리스도**이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21절

- 하늘이 열리자 그가 보인 것은 연극무대에서 휘장이 열린 다음에야 비로소 관객이 무대 배후에 있던 **슈퍼스타의 위용**을 보는 것과 같다.
- 그리스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인 것은 **‘신실하고 참되다’**는 뜻인데, 그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신실하고 참되다’고 한 것이다.**

FAITHFUL AND TRUE



요한계시록 19장 1-21절

네 번의 할렐루야와 어린양의 재림

- 12절에서 ‘눈이 불꽃같고 그 머리에 월계관이 많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불꽃같은 눈으로 판단하시는 심판주요, 백전백승하는 불패신화를 가진 장군이란 뜻이다.
- ‘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비밀병기란 것을 암시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21절

-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피 묻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만 인류의 구세주이자 심판주이심을 말한 것이고,
-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마치 암행어사가 임금의 명령에 따라 고을에 이르러 그곳의 사람들에게 상벌을 내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상벌을 내리실 자**임을 말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21절

- 14절에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탄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한 것이고, 그들이 백마를 탔다는 것은 최후의 승자들임을 말한 것이다.
- 15절에서 ‘이한 짐’은 날카로운 양날 짐(로마짐)을 말하고, ‘철장’은 권세를 상징하는 철봉 곧 흙을 말한다.
- 양날 짐은 포도송이를 추수하듯 악한 자들을 추수하겠다는 뜻이고,
- 철봉으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악한 자들을 부수겠다는 뜻이며,
- 추수한 포도송이를 포도주 틀에 놓고 밟아 즙을 짜듯이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뜻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21절

- 16절에서 ‘그 옷과 다리에 쓴 이름’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나타났다. 이것은 ‘땅의 임금들’을 거느렸던 로마 황제보다 그 권세와 능력이 월등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 17-18절은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대조적인 심판과 저주의 잔치로써 공중의 새들로 하여금 다 와서 땅에 속하여 멸망 당할 자들의 시신을 먹으라는 말씀이다.
- 19절의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은 사단의 무리를 말한다.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던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21절

- 그들이 그리스도와 성도를 대항하여 일으킨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다. 이런 영적인 전쟁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영적인 전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 20-21절은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추종하던 악한 무리들이 사로잡혀 산 채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타는 불 못에 던짐을 받게 되고

요한계시록 19장 1-21절

- 모든 싸움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로 끝난다는 말씀이다.
- 이런 사실을 믿고,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비록 지금은 지고 있고, 밀리고 있고, 얻어맞고 있고, 발버둥치고 있지만,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라틴어 ADVENTVS(도착, 임재)
헬라어 PAROUSIA(도착, 임재)
용어의 사용 사례들.

- ◆ 이 용어를 신약성경에서 강림, 재림이라고 쓴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두 번째 오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황제의 도착(ADVENTVI AVG)



하드리아누스 황제(AD 117-138)의 로마 도착 주화
전면에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두상을 새겼고, 뒷면에 HADRIANVS AVG
COS III P P(하드리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집정관 3회, 국부)라고 새겼다.
뒷면에 하드리아누스(우측)가 로마(좌측)와 손을 잡는 모습을 새겼고,
뒷면에 ADVENTVS AVG(황제의 도착)이라고 새겼다.

황제의 도착(ADVENTVI AVG)



하드리아누스의 유대 도착 주화(주후 134/5-138년)
전면에 율게관을 쓴 얼굴을 둘러싸고 HADRIVS AVG COS III PP
(하드리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집정관 3회 국부)라고 썼고, 뒷면 왼쪽에
하드리아누스가 유대에 도착해서 환영인파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는
모습과 오른쪽에 유대가 왼손에 신주병(神酒瓶), 오른손에 술잔을
들고 있는 모습,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고 있는 모습, 그들 앞에
제단과 희생제물이 놓인 모습, 그리고 그 둘러싸고 ADVENTVI AVG
IVDAEAE, SC(황제의 유대 도착, 원로원의 법령)이라고 새겼다.

황제의 도착(ADVENTVI AVG)



세프티미우스 세베루스(AD 193-211) 황제의 로마 도착 주화
전면에 세프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의 월계관을 두른 두상을 새겼고,
뒤면에 SEVERVS PIVS AVG(경건한 세베루스)라고 새겼다.
뒤면에 말을 탄 세프티미우스 세베루스가 실제로 로마에 입성하는
모습과 흥분한 말을 군기를 든 군인이 제지하는 모습을 새겼다.
뒤면에는 ADVENTVS AVG(황제의 도착)이라고 새겼다.

황제의 도착(ADVENTVI AVG)



트라야누스 데키우스 황제의 로마 도착 기념 주화(주후 251년)
황제가 통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초림)이거나 먼 곳에 갔다가 돌아온
것(재림)을 기념하여 제조되었다. 도착, 귀환, 임재, 왕림 등을 뜻하는
라틴어는 어드벤투스(Adventus)이며, 헬라이 파루시아(parousia)에
해당된다. 전면에 찬란한 갑옷을 입은 데키우스 황제의 옆 얼굴 둘레에
IMP CMQ TRAIANVS DECVS AVG(황제 가이우스 메시우스 퀸투스
트라야누스 데키우스 아우구스투스)라 새겼고, 뒷면에 홀을 쥐고 군중에게
손을 흔드는 황제 둘레에 ADVENTVS AVG(황제 왕림)이라고 새겼다.
데키우스는 기독교를 극심하게 탄압하였고, 칙령을 내려 기독교도가 아니라고
명기한 증명서(libellus, 250)를 소지하도록 하였는데, 발급대상은 모든
로마시민권자들이었다. 카라칼라의 칙령(212)이후 속주민도 로마시민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로마제국의 모든 자유민이 이 법에 따라야 했다.

황제의 도착(ADVENTVI AVG)



콘스탄티누스 대제(AD 310-312)의 런던 도착 주화
전면에 갑옷 차림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두상을 새겼고, 둘레에
CONSTANTINVS P(ius) F(elix) AVG(콘스탄티누스 경건하고 축복
받은 아우구스투스)라고 새겼다. 뒷면에 말을 탄 콘스탄티누스가 왼손에
창을 들고 있고, 오른손을 들어 환영인파에게 답례하는 모습을 새겼으며,
오른쪽 앞발을 올린 말 아래에 잔고려 앉은 포로의 모습을 새겼다.
또 말꼬리 부분에 날개를 새겼고, 하단에 런던에서 주조되었다는 표시인
PLN을, 둘레에는 ADVENTVS AVG(황제의 도착)이라고 새겼다.

개선, 천사, 나팔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주후 121-180년)의 개선문 부조
게르만 민족을 물리치고 개선하는 황제의 머리 위로 수호천사
게니우스(Genius)가 부조되었고, 네 필의 말이 끄는 전차 좌측에
개선을 알리는 로마군대의 나팔수와 나팔(salpinx)이 부조되었다.

개선, 천사, 나팔, 환영인파



티투스의 개선문 부조(주후 81년, 복사본, 미국 LA카운티 미술관)
오른쪽에 투가를 걸친 티투스가 네 필의 말이 끄는 전차에 올라서있고,
뒤에서 여신 니케(승리)가 티투스의 머리에 월계관을 씌우고 있다.
전차 옆에 상체가 드러난 사람은 평민을, 투가를 걸친 사람은
원로원의 의원을 대표한다.
말고삐를 붙잡고 있는 여성은 여신 로마 또는 여신 통령을 상징한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승리자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20장 1-6절

[1]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하여

[3]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6절

[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요한계시록 20장 1-6절

[5]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계시록 20-21장(Albrecht Durer, 1496)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Albrecht Durer의 작품이다.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진 천사가 마귀를 결박해 무저갱에 가두는 것과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20-21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진 천사가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는 것과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였다.



계시록 20-21장(Otteinrich Bible, 1532)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Matthias Gerung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진 천사가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는 것과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였다.


요한계시록 20장 1-6절

천년왕국

- **계시록 20장 1-6절은 해석하기가 가장 난해한 곳이다.**
신학자들 사이의 의견도 크게 넷으로 나뉘어져 있다.
- 그 이유는 사탄이 천년 동안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잠깐 풀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 또 사탄이 무저갱에서 풀린 후에는 7-9절에 언급된 대로 유럽과 근동과 북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들을 끌어 모아 연합군을 결성하여 하나님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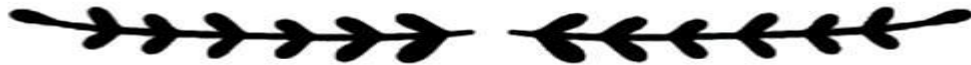
천년왕국

- 그리고 이 전쟁 후에 비로소 사탄이 무저갱이 아닌 **‘불 못’**에 던져 짐으로써 모든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들이 끝나는 것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 무저갱과 불 못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점도 설명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 사람이 죽어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머무는 곳을 성경에서는 **‘음부’ (하데스)** 또는 **‘중간 상태’**라고 말한다.
- 

요한계시록 20장 1-6절

천년왕국

- ‘음부’는 넓은 의미에서 ‘죽음의 세계’ 혹은 ‘영혼의 세계’이다.
- 이 음부가 ‘낙원’과 ‘무저갱’/‘탈타로스’로 나뉜다.
- 무저갱(無底坑)은 ‘깊은 곳, 밑바닥이 없는 곳, 끝이 없는 구덩이’란 뜻이다. 그리스신화와 신약성경에서 모두 쓰인 ‘탈타로스’(벤후 2:4)와 ‘무저갱’은 거의 동일 개념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6절

천년왕국

- 다만 성경에서는 낙원에 반대되는 개념인 탈타로스나 무저갱을 음부로 지칭할 때가 있어서 음부란 말은 종종 좁은 의미에서 무저갱이나 탈타로스를 지칭하기도 한다.
- 무저갱과 탈타로스는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재림 후 부활하여 **불 못**에 들어갈 때까지 벌을 받는 고통과 흑암의 장소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6절

천년왕국

- 그러나 **예수님 재림 이후의 세계는 부활세계**이다.
부활의 몸을 가진 자들의 세계인 것이다.
- **낙원의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게 되고,

- **무저갱이나 탈타로스의 저주받은 영혼들은** 심판 받을 몸으로 부활하여 **‘불 못’**에 들어가 밤낮 씹을 얻지 못하게 된다.


요한계시록 20장 1-6절

천년왕국

- 계시록 9장 1-2절을 보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어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의 나팔재앙인 황충과 2억의 마병대를 예비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이들 가운데는 무저갱의 사자요, ‘아바돈’이란 이름의 ‘파괴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황충의 임금이다.

‘파괴자’
아바돈 (Abaddon)
혹은 아볼루온
(Apollyon)를 묘사한
〈천로역정〉의 삽화.
그리스도인이 아볼루온과
싸우는 장면.

박해자들이었던
갈리굴라, 네로,
도미티아누스가 자신들을
아폴론의 화신(계시)으로
주장하였다.



사탄과 동의어들

- ▶ 하데스 (플루톤) - 음부의 지배자
- ▶ 아바돈 (아볼루온/아폴론) - 무저갱의 사자

음부(죽음의 세계)

- ▶ 엘리시온 (낙원)
- ▶ 타르타로스 (무저갱, 지옥)

지옥과 동의어들

- ▶ 무저갱 (타르타로스)
- ▶ 불 못

요한계시록 20장 1-6절

천년왕국

- 계시록 1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두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를 대적하여 싸울 자로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을 언급하고 있다.
- 13장 1절에서는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 17장 8절에서는 박해자인 짐승, 곧 황제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6절

천년왕국

-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무저갱은 죽음의 세계**이다.
- 이곳 죽음의 세계에서 올라오는 것들, 곧 황충이든, 짐승이든, 사탄이든, 타락한 천사이든 다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무저갱의 사자, '아바돈'은 사탄일** 가능성이 크다.

- 사탄과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항하지만, 그들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무서워하고 추종하는 자들을 해할 수 있을 뿐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6절

-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은 자신의 군병들을 공격하여 괴롭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사탄에 매인 자들의 삶이 처참한 것이다.
- 아무튼 3절은 사탄이 일정기간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 앞서 언급된 내용으로 보서는 사탄의 주거지가 무저갱이요, 그곳의 왕초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3절에서는 일 천년 동안 꼼짝 없이 갇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6절

천년왕국

- 그 때가 언젠가라는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계시록 20장 4-6절은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천년왕국의 기간과 방법에 관한 명쾌한 답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고, **천년왕국의 '천년'이란 말이 문자적인지 영적인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시록 20장 4-6절에 대한 해석은 **각기 다른 네 가지 왕국설로** 나뉘지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20장 1-6절

천년왕국

- 4절에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에서 **보좌에 앉은 자들로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누구인가**라는 질문도 명쾌한 해답을 얻기가 쉽지 않다. 그들은 신구약을 아우르는 24장로이거나

최후까지 믿음을 지킨 구원받은 성도들일 수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6절

천년왕국

- 성도들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또 4절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자들이라 하였으니, 성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문제는** 죽었다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들 성도들이 언제 또 어떻게 왕 노릇하는가이다.
- 이 문제에서는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방법과 영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으로 크게 나뉜다.

요한계시록 20장 1-6절

- 먼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 후에 부활한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문자적인 천년 동안 이방의 나라들을 대상으로 왕 노릇한다고 본다. 이것을 ‘역사적 전 천년설’이라 한다. **혁명가들은 주로 여기에 속한다.**
- 그들 가운데 또 다른 부류는 이 천년왕국이 문자적인 유대왕국의 회복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 그렇게 되면 왕 노릇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상류층계급에 머물게 된다. 이들의 주장을 ‘시대구분설’ (세대주의, 유대교적 기독교인)이라 한다.

요한계시록 20장 1-6절

천년왕국

- **시한부 종말론으로** 종종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시대구분론자들이다.
- **영적으로 이해하는자들 가운데 한 부류는** **현 세상이 천년왕국**이라고 믿는다.
-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고 곧바로 영원한 세계가 이어진다고 믿는다. 이것을 **‘후 천년설’**이라 한다. **개혁가들이 주로 여기에 속한다.**

요한계시록 20장 1-6절

천년왕국

- 영적으로 이해하는 자들 가운데 또 다른 부류는 현 세상이 천년왕국은 아니고, 천상의 '낙원'과 지상의 '교회'가 천년왕국이라고 믿는다.
-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들이 낙원에서, 교회의 성도들이 지상에서 영적으로 천년왕국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죄악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무 천년설'이라 한다.

요한계시록 20장 1-6절

천년왕국

- 5-6절의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대한 해석은 앞에서 언급한 천년설에 준한다.
- 영적으로 이해하는 '후 천년설'과 '무 천년설'은 '첫째 부활'이 '영혼부활' 곧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역사적 전 천년설'과 '시대구분설'은 예수님 재림 후에 있을 '육체부활'이라고 믿는다.
- 여기서 '첫째 부활'과 연관된 중요한 어휘가 4절에 나온 '살아서'란 표현이다. 영적으로 살았다는 뜻인지, 육체로 부활하였다는 뜻인지는 천년설의 입장에 따라 갈린다.

요한계시록 20장 1-6절

천년왕국


- **‘살아서’의 뜻이 영적이라고 보는 입장이** ‘후 천년설’과 ‘무 천년설’이다.
- 반대로 **‘살아서’가 육적이라고 믿는 입장은** ‘역사적 전 천년설’과 ‘시대구분설’이다.
- **‘천년’이란 말도** ‘후 천년설’과 ‘무 천년설’은 영적으로 이해하고, ‘역사적 전 천년설’과 ‘시대구분설’은 문자적으로 이해한다.

요한계시록 20장 1-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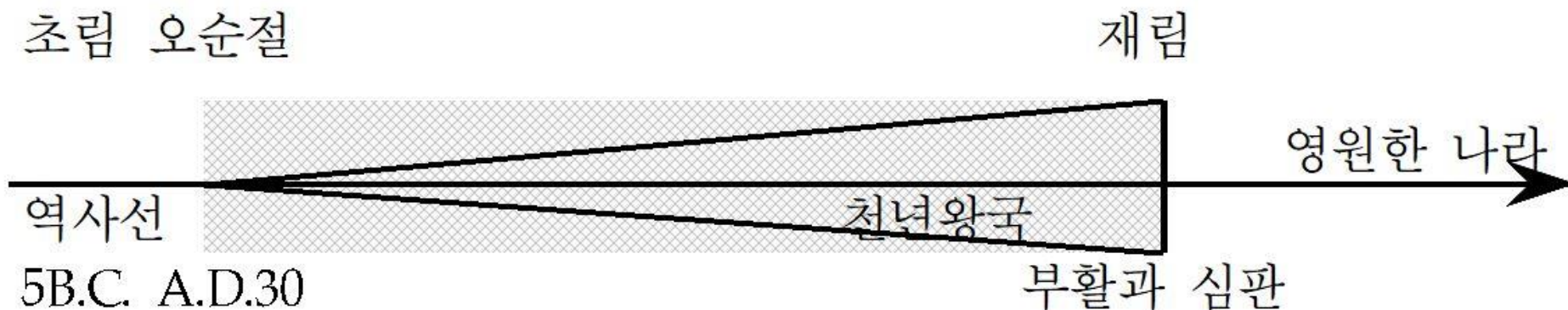
천년왕국

- '둘째 죽음'도 마찬가지로이다.
- '후 천년설'과 '무 천년설'은 '둘째 죽음'을 육체 죽음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첫째 죽음'은 '영혼죽음'이 된다.
- '영혼죽음'이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 또는 떨어진 것을 뜻한다.
- '역사적 전 천년설'과 '시대구분설'은 '첫째 죽음'을 성도들의 '육체죽음,' '둘째 죽음'을 불신자들이 불 못에 들어가 겪는 고통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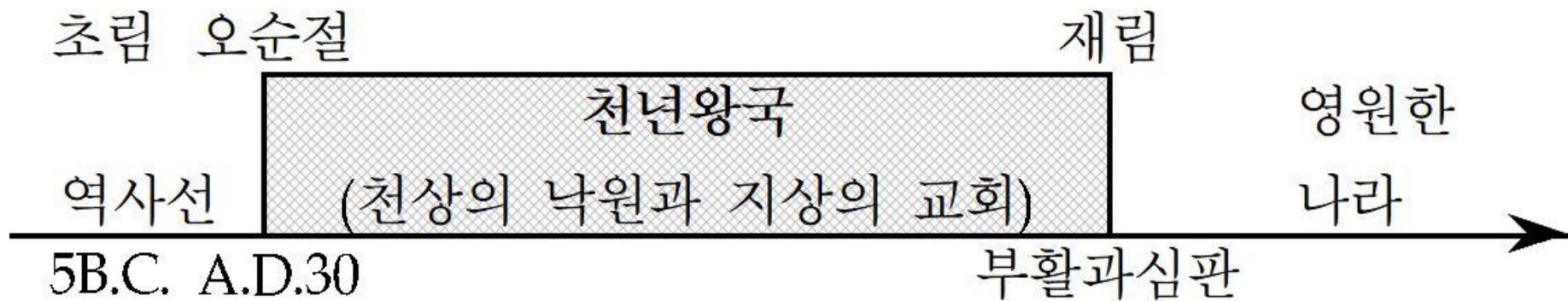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한다.

- “살아서”와 “왕 노릇”은 회개에서 비롯된다.
 -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마 3:2).
 -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예정된) ‘종말’(마지막)은 ‘좋은 것들’(부활, 영생, 행복, 등)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 회개한 그리스도인은 ‘좋은 것들’ 곧 종말의 것들을 오감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자인데, 이것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한다.”는 한 가지 뜻이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현재 종말’, ‘시작된 종말’, ‘실현된 종말’이라고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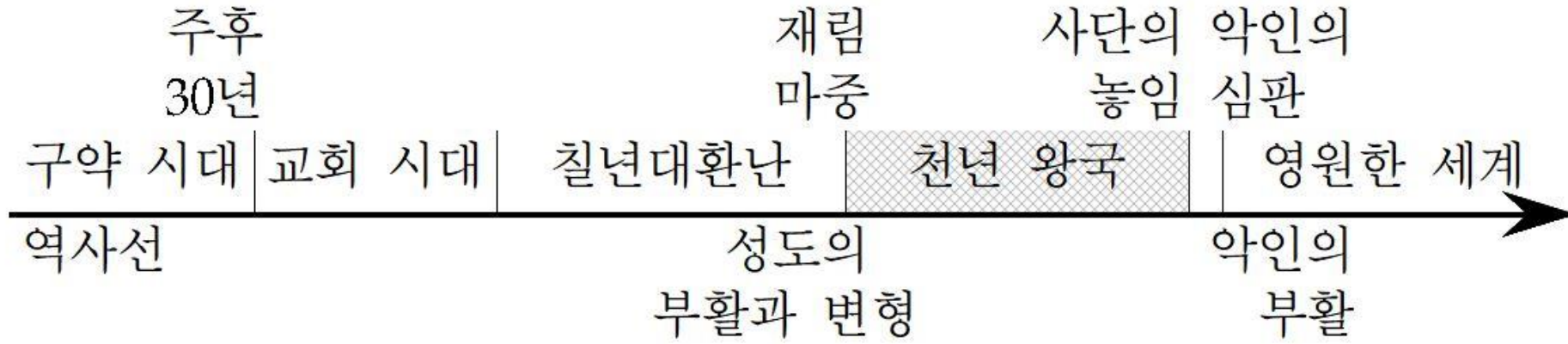
후천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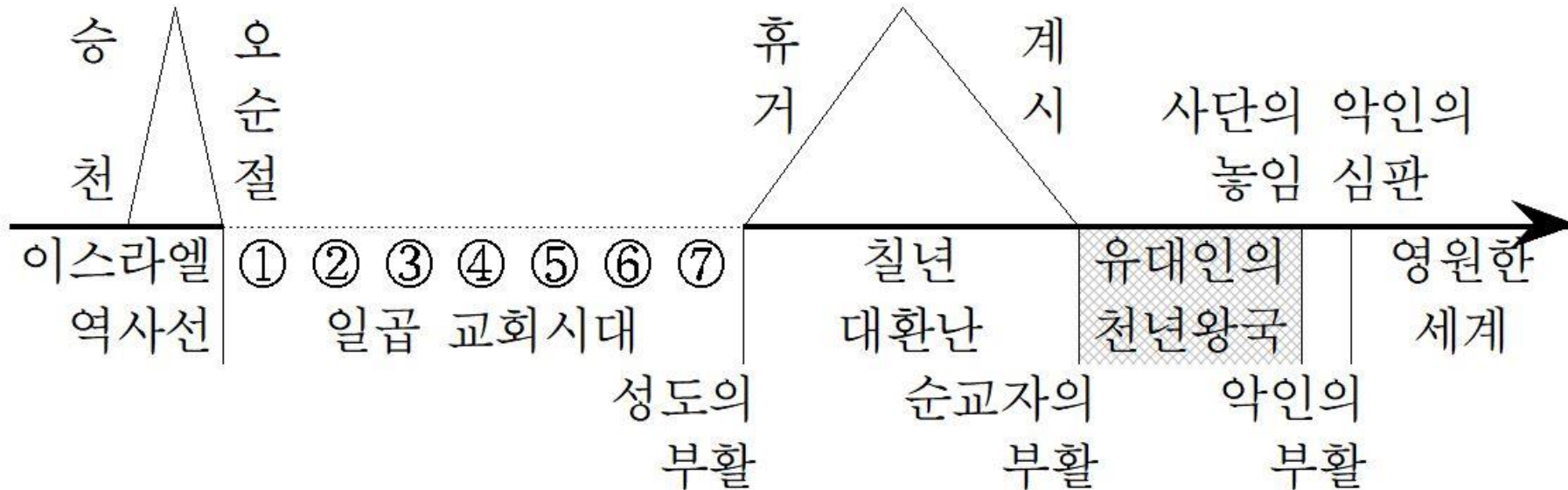
무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시대구분(세대주의)설



70이레 도표

마. 70이레 도표

시대구분론자들이 주장하는 70이레는 구약 다니엘서 9장 24-27절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단 9: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70이레 도표

(단 9:25)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 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단 9:26) 육십 이 이레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단 9: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70이레 도표

이 말씀과 계시록 11-13장에서 언급된 삼년반에 근거해서 시대구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표를 만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마지막 70이레이다. 시대구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주간을 주후 26년 69이레가 끝난지 수천 년이 지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다고 주장하는 칠년대환난의 기간으로 해석한다. 여기서 70이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데 주후 26년에 69이레가 마쳤고, 나머지 70번째 이레가 남았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칠년대환난의 때로 미루어 해석한다면, 이스라엘은 그 때까지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스

70이레 도표

라엘은 주후 135년경에 나라를 완전히 잃었고, 1948년 5월 14일에 건국하였다. 환언하면, 이스라엘은 주후 26년 이후에도 135년까지 지구상에 존재했었고, 그후 나라가 없다가 1948년에 건국하여 지금 부국을 이루고 있다.

70이레 도표

457B.C.	408B.C.	A.D.26	휴거	계시	
7x7=49년	62x7=434년	30년/교회시대	칠년대환난	천년	영원한
7이레	62이레	①②③④⑤⑥⑦	1이레	왕국	세계
주전 457년에 예루살렘 을 중건하라 는 영이 내림 (단 9:25)	주전 408년에 예루살렘성 중건 (단 9:25)	주후 26년에 기름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남(단 9:25) 62이레 후에 기름부음 받은 자가 끊어짐 (단 9:25)	장차 한 왕의 백성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함(단 9:27) 그이레절반에 제사와예물을 금함(단 9:27)		이미 정한 종말 까지 (단 9:27)

70이레 도표

다니엘 9장 24-27절에서 말하는 마지막 이레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26년에 세레 받고 시작해서 30년에 끝낸 예수의 삼년반 공생애를 전 삼년반으로 볼 수 있고, 30년에 교회가 창립해서 34년에 바울이 개종한 때까지를 후 삼년반으로 볼 수 있다.

둘째, 66년에 시작해서 70년에 끝난 유대 전쟁과 예루살렘 멸망을 전 삼년으로 볼 수 있고, 전투에서 패배한 잔류 열심당원들이 마사다 성에서 투쟁한 70년에서 73년까지를 후 삼년반으로 볼 수 있다.

70이레 도표

셋째, 에피파네스 안티옥쿠스 4세가 즉위한 이후로 성전을 모독하고 유대교를 금하며, 헬라화를 추진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주전 168년까지를 전 삼년반으로 볼 수 있고, 마카비가 이끄는 하시딴의 승리로 유대교 금지령을 해제시키고, 성전 예배를 복원한 주전 165년까지를 후 삼년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니엘이 예언한 장차 나타날 한 왕은 예수, 티투스,

중요 연대표

또는 안티옥쿠스 4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

바. 중요 연대표

주전 612년 바벨론이 앗수르의 수도 니느웨성 함락

주전 609년 이집트의 느고 2세 팔레스틴 진군, 요시야 므깃도
에서 전사, 유대왕국 속국화

주전 605년 바벨론이 갈그미스에서 이집트 군대 제압, 제 1차
포로

주전 597년 바벨론이 예루살렘 정복, 제 2차 포로

주전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 함락, 성전파괴, 제 3차 포로

주전 539년 10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 정복. 332년까
지 이스라엘을 지배.

중요 연대표

주전 538년 고레스의 칙령으로 유대인 본국에 1차 귀환, 스룹
바벨 인도(스 1:2-4)

주전 516년 예루살렘 성전 건축

주전 457년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유대인 본국에 2차 귀환, 에
스라 인도, 예루살렘성 중건축(스 7:7; 단 9:25)

주전 432년 유대인 본국에 마지막 귀환, 느헤미야 인도

중요 연대표

주전 408년 예루살렘성 중건

주전 332년 헬라제국(알렉산더)이 팔레스틴 정복, 141년까지
이스라엘을 지배

주전 168-141년 마카비 독립전쟁

주전 141-63년 하스몬 집안이 독립 이스라엘 왕국 통치

주전 63년 로마제국(폼페이)이 예루살렘 함락. 주후 395년까지
팔레스틴을 지배

주후 26-30년 예수의 공생애 및 30년 교회 출범

주후 66-70년, 132-135년 유대 독립전쟁

주후 395-638년 기독교 비잔틴이 팔레스틴 지배

주후 638-1099년 칼리프 제국(아랍, 모슬렘)이 팔레스틴 지배

중요 연대표

주후 1099-1291년 십자군 시대

주후 1250-1517년 이집트의 팔레스틴 지배

주후 1517-1917년 오토만 터키의 팔레스틴 지배

주후 1917-1948년 영국의 위임통치(국제연맹)

주후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

예레미야서 25장 11-12절(단 9:2)에 의하면, 유대왕국의 포로기간이 70년간으로 예언되어 있다. 70년 포로기간은 두 가지 연대 측정이 가능하다. 첫째는 608년-538년=70년이고, 둘째는 586년-516=70년이다.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제 1차 포로이후 유대인들이 느헤미야의 지휘 하에 마지막으로 본국에 귀환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73년(605-432=173)이다.

이슬람 제국



오스만 제국(1299-1922)



천년설의 시대적 변천

10. 千年說의 時代的 變遷

첫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기까지는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던 때이라, 전 천년설을 선호하였다. 파피아스, 이레내우스, 순교자 저스틴, 터툴리안, 히폴리투스, 메도디우스, 콤모디아누스, 락탄티우스 등의 초대교회 교부들이 전 천년설을 인정하였다.

둘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한 이후에는 어거스틴(354-430)의 후천년설의 영향을 받아 에베소 종교회의(431년)에서 전 천년설을 정죄하였다. 티코니우스, 빅토리누스, 안드레아스가 후천년설을 주장하였다.

천년설의 시대적 변천

셋째, 12세기 말엽에 와서는 요아킴이 다시 전 천년설을 주장하였다. 요아킴이 교황을 적그리스도인 짐승으로, 천주교회를 음녀로, 교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때를 천년 왕국의 시작으로 해석한 영향으로 천년 왕국의 시작을 종교개혁이후로 보는 견해가 생겼다.¹¹⁾ 토마스 문처의 농민전쟁도 이 범주에 속한다.

11) 김철손, 『요한 계시록 신학』(대한기독교서회, 1989), 96-10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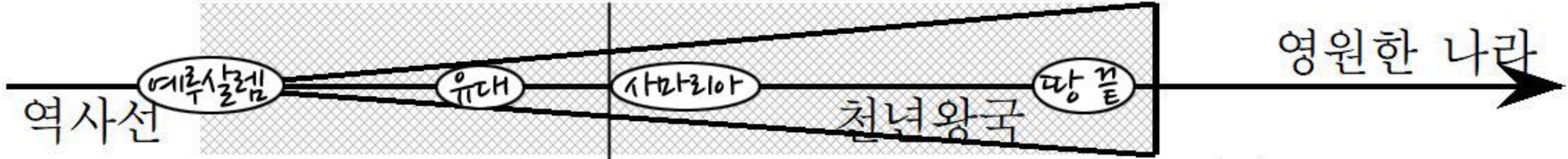
천년설의 시대적 변천

넷째, 르네상스, 산업혁명, 계몽시대의 영향으로 낙관론이 득세하면서 후천년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다니엘 휘트비(1638-1726), 아우구스투스 스트롱, B.B. 워필드, 찰스 핫지 등이 여기에 속한다. 20세기 초 활발해진 선교 활동과 선교사 파송에도 영향을 받았다.

다섯째, 1827년 영국 성공회의 신부 요한 다비(1800-1882)가 시대구분설을 펴뜨린 이후 C. I. 스코필드가 주석성경을 만들 정도로 시대구분설은 인기리에 번졌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회복 등 역사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사건들을 인식하고,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1988년, 1992년 휴거설을 주장하였으나 모두 빛나가고 말았다.

낙관적 후천년설: 믿음의 선한 싸움(갈 2:8, 행 28:31)

-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 그리스도교의 성공에는 강한 소명의식, 사명의식, 성령충만, 끈질긴 기도, 인내의 믿음, 낙관적 후천년설이 있었다.
- 출애굽기, 여호수아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흑암과 혼돈과 무(無)에서 출발하여 각종 환난과 시련을 이기고 빛과 질서와 생명으로 점진적으로 성장 발전하여 완성에 이르는 후천년설적(postmillennial) 성공 스토리(success stories)이다.



5B.C. A.D.30

부활과 심판

전반부: 행 6:7(점점 왕성하여 수가 많아짐), 행 9:31(튼튼히 서 가고 수가 많아짐)

후반부: 행 12:24(흥왕하여 더함), 행 16:5(더 굳어지고 수가 더함), 행 19:20(흥왕하여 세력을 얻음), 행 28:31(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금하는 사람이 없음)

주역: 베드로와 히브리파 사도들 유대인들에게만 전도 함.

주역: 바울과 헬라파 동역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전도 함.

사역 방법: 여행(순례 행진), 성령충만, 기도

사역 방법: 여행(순례 행진), 성령충만, 기도

추진동력(Pusing Power): 배척, 환난, 사두개이들과 사울의 박해

추진동력(Pusing Power): 배척, 환난, 헬라파(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심한 박해로 인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함.

행 8:1,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행 8:4,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행 11:19, "그 때에 스테바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귀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 미합중국의 성공에는 사명의식, 소명의식, 개척정신, 낙관적 후천년설, 자유가 있었다.



- 우측 국장에서 흰머리수리가 부리에 “다수로부터 하나로”(E pluribus unum)라고 쓴 두루마리를 물고 있다.

- 좌측 국장 중앙에 황무지에 건설중인 피라미드와 그 위에 섭리의 눈이 있고, 하단에 미국 독립선언의 해인 “1776” 이란 숫자가 라틴어 문자 “MDCCLXXVI”로 새겨져 있다.
- 국장은 통일, 자유, 독립, 개척정신의 상징으로써 1782년에 제정되었다. 국부들은 낙관적 후천년설의 입장에서 1776년 13개 주를 통일하여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미합중국을 건설하였고, 하나님께서 자국민들이 하는 일들을 ‘섭리의 눈’으로 보살피 주시고(ANNUIT COEPTIS: favorable to our undertakings), ‘새 천년시대의 새 질서’(Novus Ordo Seclorum: New Order of Ages)를 열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 18-19세기 미국의 성공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성공도 이 같은 통일, 자유, 독립, 개척정신과 ‘새 천년시대의 선구자’라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환원운동가들의 두 가지 확신

-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미완으로 끝난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완성시키시려고 환원(신약성경교회)운동을 전령(Christian Messenger)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 그들은 이 확신 속에서 새천년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를 자임하면서 그리스도교 일치운동과 신약성경(사도전통)교회 회복운동(Restoration Movement of the New Testament Ancient Order of Things)을 낙관적 후천년설의 입장에서 펼쳤다.

THE

CHRISTIAN MESSENG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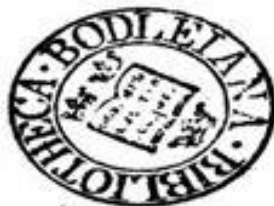
AND FAMILY MAGAZINE;

DEVOTED TO THE

DISSEMINATION OF PRIMITIVE CHRISTIANITY.

ENLARGED SERIES.

VOL.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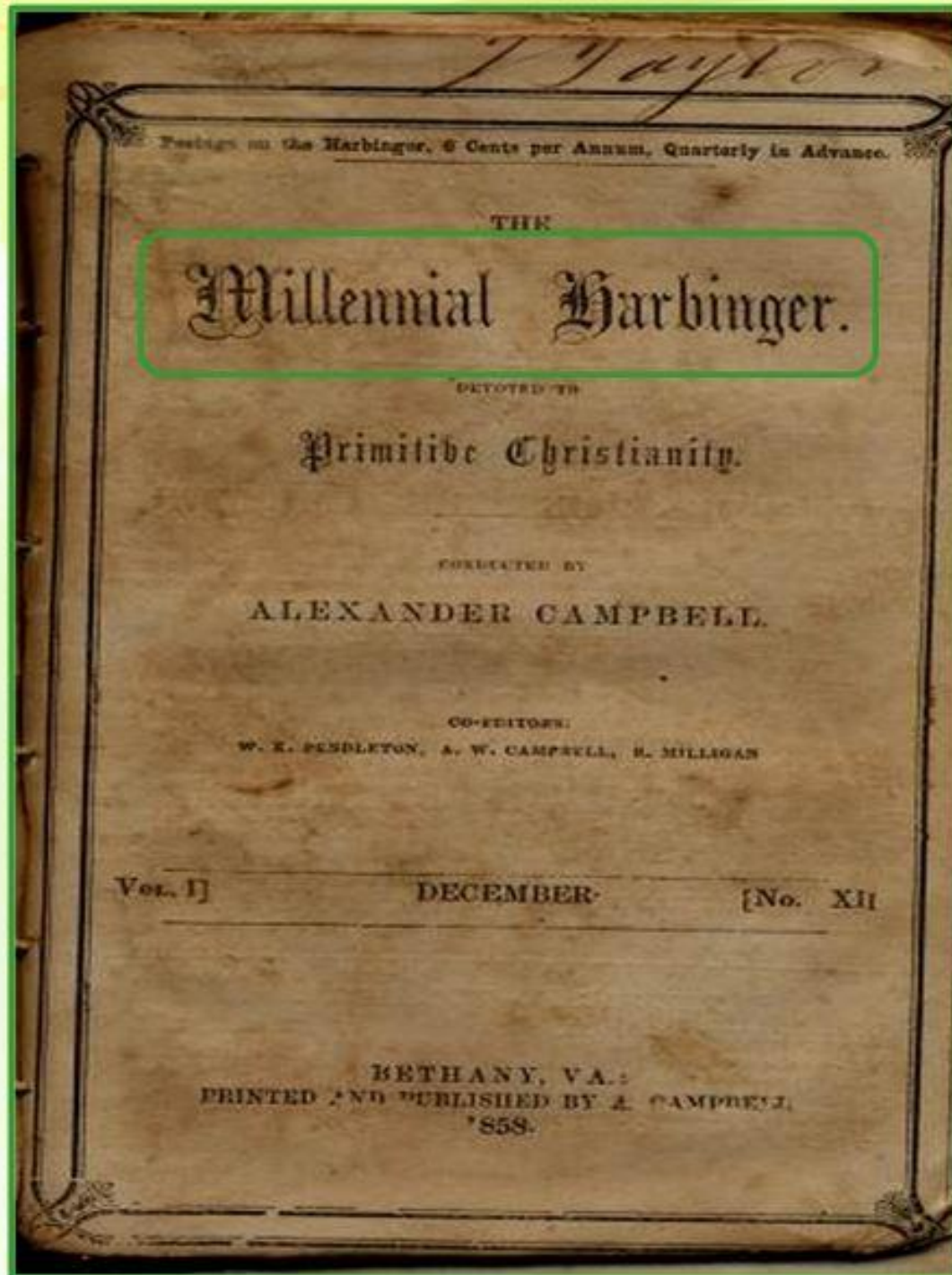


LONDON:

PUBLISHED BY SIMPKIN MARSHALL AND CO.,
STATIONERS' HALL COURT;

AND MAY BE HAD OF THE BOOKSELLERS IN ANY PART OF ENGLAND,
IRELAND, SCOTLAND, AND WALES.

1846.



-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배도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 역시 후천년설적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이다.
-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천년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일군으로 전령으로 또는 선구자로 부르셨고, 그 귀한 사역을 위해 세상에 보내셨으며, 나의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섭리의 눈으로 보살펴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 그리고 성령충만, 끈질긴 기도, 인내의 믿음으로 뚜벅뚜벅, 마치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혹은 하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순례했듯이, 전진해 나가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승리자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20장 7-15절

- [7] 천 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 [8]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 [9]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 [10]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 [11]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요한계시록 20장 7-15절

[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21장(Luther Bible, 153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Hans Burgkmair의 공방에서 만든 것이다.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진 천사가 마귀를 걸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는 것과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였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의 상층부 중앙의 한 장면
 중앙에 심판주 그리스도와 성모를, 성모의 밑에 뜨거운 석쇠
 위에서 고문을 받고 순교한 라우렌티우스를, 건너편에 산 채로
 살가죽을 벗기는 참형을 받고 순교한 바돌로매가 칼과
 인피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미켈란젤로는 그 인피에
 자신의 자화상을 그려넣었다. 그리스도를 옹위한 자들은
 사도들과 성도들이고, 힌수염의 열쇠를 쥐는 사람이 베드로이며,
 그의 밑에는 당시의 교황 바오로 3세의 동안이라고 한다.



최후의 심판(Stefan Lochner, c. 1435,
Wallraf-Richartz Museum, Cologne 콜른, 독일)
독자의 좌측은 구원 받은 성도들이 천사들의 안내를 받으며 천성으로 들어
가는 모습이고, 독자의 우측은 저주 받은 자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요한계시록 20장 7-15절

최후의 승리

- 계시록 20장 7-8절에서 **사탄**이 천년 후에 무저갱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통치자의 이름)과 마곡(동유럽)**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 장면은 **에스겔서 38-39장**에 연결된다.
- 거기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곡 땅에 있는 로스(러시아)와 메섹(모스크바)과 두발(토볼스크) 지역의 왕인 곡**을 쳐서 예언하도록 말씀하고 있다.



러시아

• 두발

메섹

마곡

우크라이나

고멜

터키 도갈마

이스라엘

바사

이란

붓 리비아

구스

에디오피아

요한계시록 20장 7-15절

- 그 내용은 **앞으로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 로스(러시아)와 메섹(모스크바)과 두발(토볼스크)과 바사(이란)와 구스(에티오피아)와 붓(리비아)와 고멜(루마니아)과 북방의 도갈마(튀르키예) 족속을 연합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겠다**는 예언이다(겔 38:1-6).
- **유럽과 근동과 북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망라된 연합군**을 말한다. **비교: 2억 마병대(계 9:16)**
- 팔레스타인 땅의 작은 이스라엘이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막강한 연합군이다.

요한계시록 20장 7-15절

- **마곡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분노 하시고 산으로 이들을 이끌어 내어서 그곳에서 서로 칼로 치게 하여 심판하시되 온역과 피와 폭우와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이 모든 곡의 군대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Peace, Be Still!”

..........

- 이 일로 온 나라가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겔 38:18-23).

요한계시록 20장 7-15절

최후의 승리

-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자기 시대보다 6~700년 앞서 예언되었고, 여전히 이뤄지지 아니한 에스겔서의 이 예언을 사탄이 무저갱에서 풀린 이후 악한 자들을 연합시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대항할 영적 전쟁으로, 그러나 최후 승리로 끝날 전쟁을 묘사하고 있다.
- 이 전쟁에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결박되어 불 못에 들어가고 싸움이 영원히 멈추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7-15절

최후의 승리

- 사탄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 피조물이 그 수가 아무리 많다 한들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겠는가?
- 그래서 계시록 20장 9-10절은 에스겔 38장 18-23절에 예언된 곡의 멸망에 연결해서
- 사탄의 노력이 얼마나 허망하게 붕괴되는가를 보여준다.



요한계시록 20장 7-15절

최후의 승리

-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 이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항하여 싸우려 들던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과 유황과 연기로 가득한 지옥의 불 못에 던져져 그곳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도록 **운명** 지어졌다.

요한계시록 20장 7-1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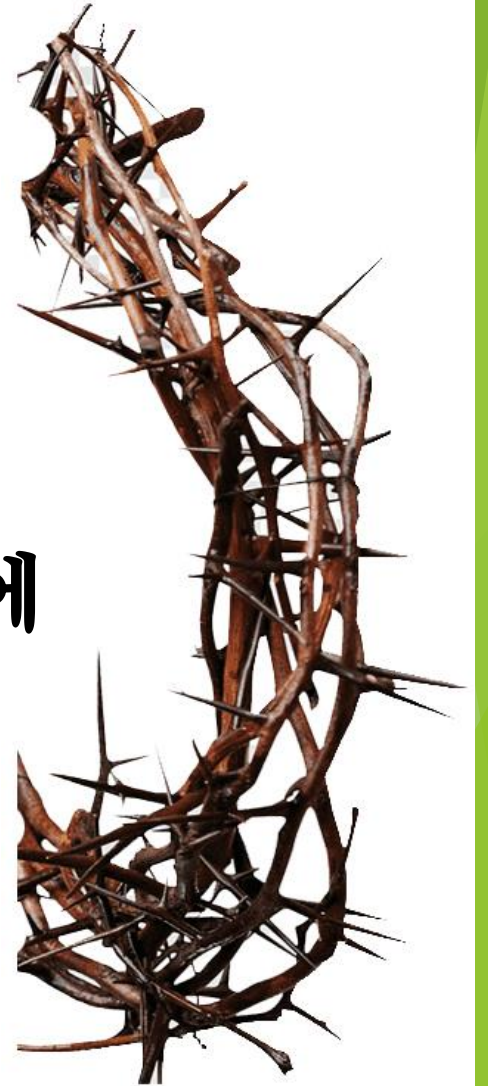
최후의 승리

- 계시록 20장 11-15절은 **‘흰 보좌 심판’**에 관한 말씀이다.
-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산 자들은 변화되어 흰 보좌 앞에 서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 이 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음부와 함께 불 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 불 못이 둘째 사망이다.**

요한계시록 20장 7-15절


최후의 승리

- **유대인들은** 티쉬리월 1일 새해부터 대 속죄일인 10일까지 지난해의 허물과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한 해의 축복을 보장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봉인되기를 소망한다.
-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년 소망이다.
- **생명책**은 계시록에서 여러 차례 구원과 관련해서 언급되었다.



요한계시록 20장 7-15절

최후의 승리

-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다.
-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만 다 불 못에 던져지게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참 안식을 얻는다.
- 참 안식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다.

요한계시록 20장 7-15절

최후의 승리

- 성경 66권의 주제는 한 마디로 요약해서 **승리**이다.
-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 **‘하나님을 대항하여 능히 이길 자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원이다.’**고 말한다.
- **하나님은 승리자이시요,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시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승리자 이상의 승리자이다 (롬 8:37).**



요한계시록 20장 7-15절

- 성경의 뼈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이를 증명한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짧게 잡아 215년, 길게 잡아 430년의 세월을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지도자 모세의 인도로 감행했던 영광의 **이집트탈출** 사건과
- 유대민족이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간 후, 스톱바벨의 인도로 제1차 **고국귀환**이 70년 만에, 에스라의 인도로 제2차 고국귀환이 148년 만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제3차 고국귀환이 173년 만에 이루어졌던 사건과,
- 그리고 예수님께서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삼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신 **부활사건**이다.

요한계시록 20장 7-15절

- 이 세 가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일컬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첫 열매**’(고후 15:20,23)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이긴 후에 승리의 열매들이 된다.**
- 바울이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골 2:15)고 말한 것처럼, **노예가 해방이 되고, 포로가 자유가 되며, 죽음이 생명이 된다.**
- **수치와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가 변하여 부활과 승리와 영광의 십자가가 된다.**

요한계시록 20장 7-15절

최후의 승리

- 성경은 고난에서의 구원, 시련의 극복, 죄에서의 구원, 죽음에서의 부활과 같은 궁극적인 승리, 최후의 승리를 말한다.
-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0장 7-15절

최후의 승리

-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강조하는 메시지도 바로 이것이다.
- 요한은 1-3장에서 왜 그리스도가 이길 수밖에 없는가를 '인자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 인자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요한계시록 20장 7-15절

최후의 승리

- 그 오른손에 일곱 교회의 목회자를 상징하는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로마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 있게 비취는 것 같은 찬란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무섭게 위협하는 박해의 폭풍을 향해서 언제라도 **“잔잔하라. 고요하라.”**고 말씀의 검을 들어 명령하시면,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많은 분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0장 7-1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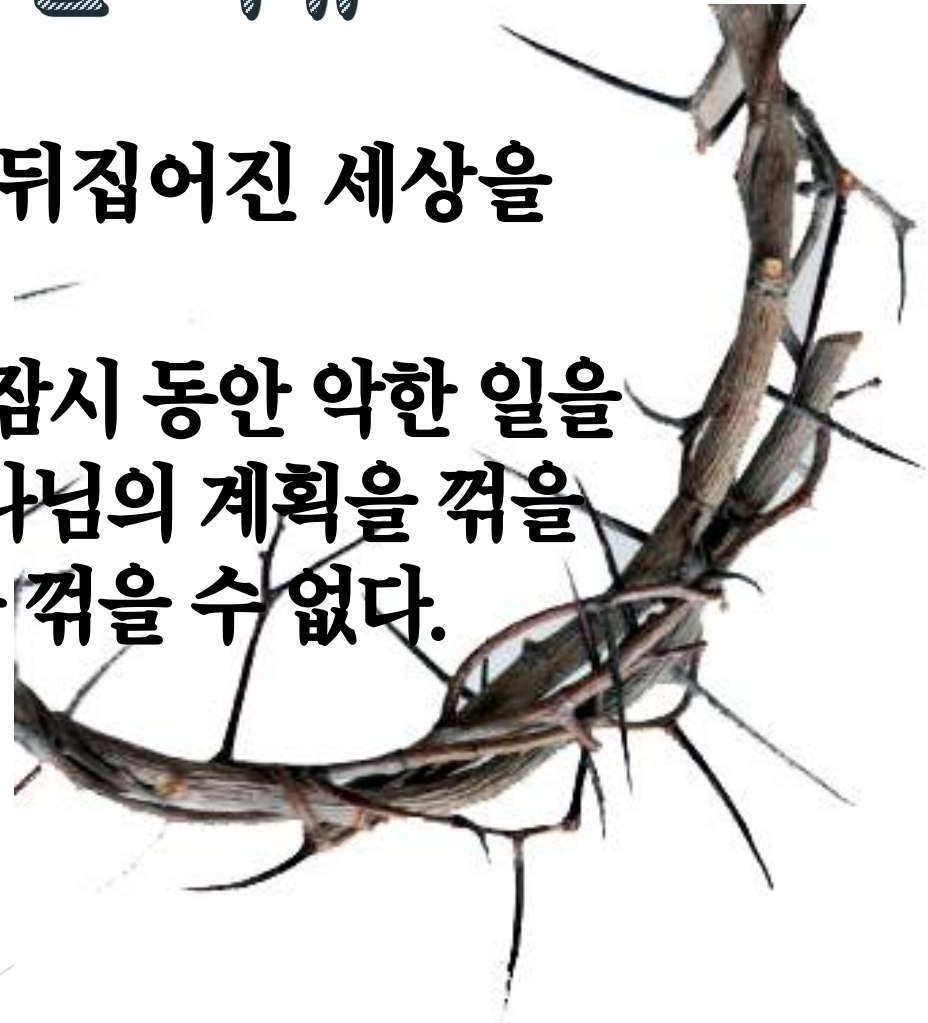
최후의 승리

- 요한은 4-6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길 수밖에 없는가를 '보좌방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 하나님은 보석과 무지개로 둘러싸인 보좌방의 주인이시며, 우주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시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계는 그분의 큰 뜻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



고난(십자가)이 승리하는 이유

- 그분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으시며, 뒤집어진 세상을 바로 세우실 분이시다.
- 하나님이 **사탄으로 하여금** 3쿼터까지 잠시 동안 악한 일을 하게 **내버려둘지라도**, 사탄은 결단코 하나님의 계획을 꺾을 수 없고, 하나님의 편에 선 교회와 성도를 꺾을 수 없다.
사탄의 최후는 불 못 신세이다.



요한계시록 이야기

승리자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21장 1-8절

[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 21장 1-8절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5]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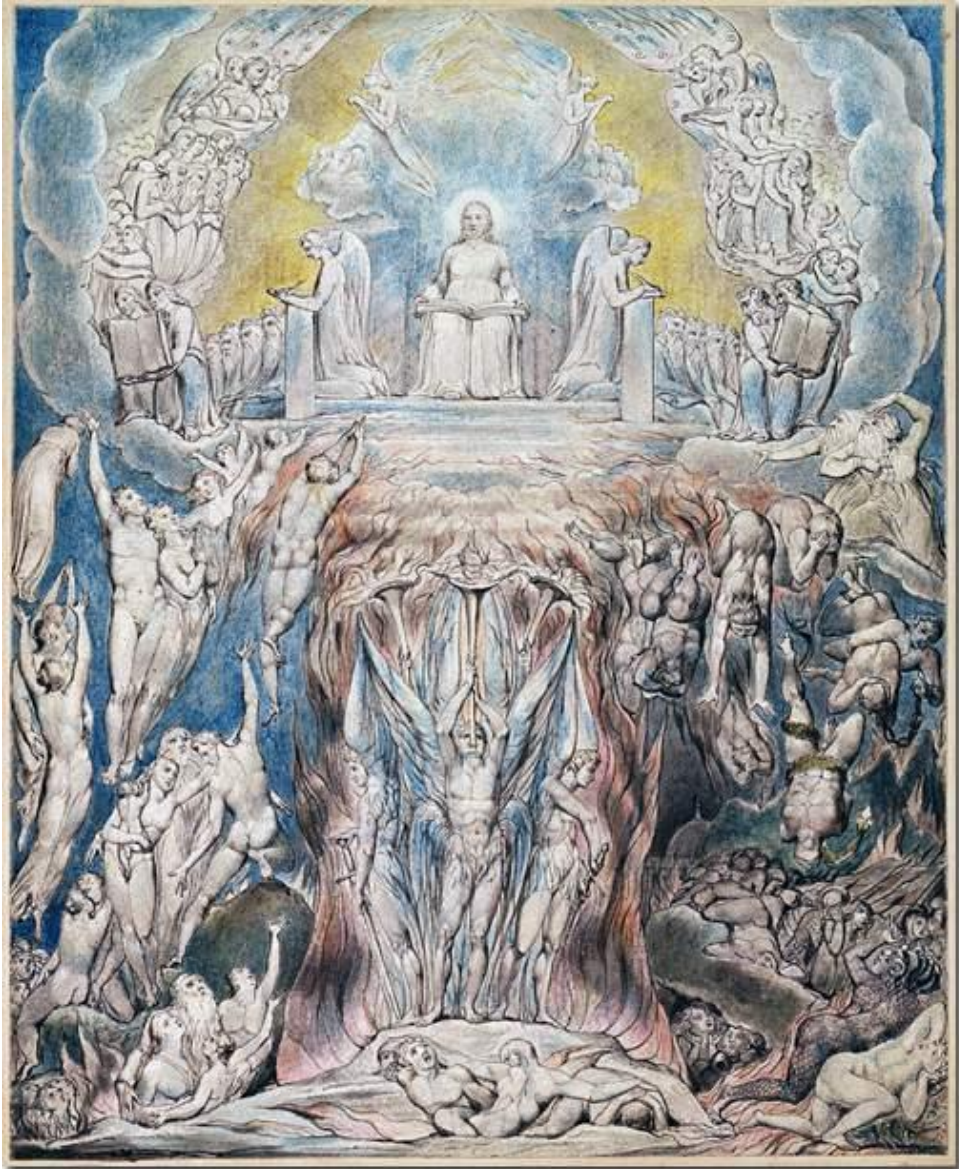
요한계시록 21장 1-8절

[7]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오귀스트 로댕(Auguste Rodin, 1840-1917)의 '지옥의 문'
상인방의 '생각하는 사람' 우측(독자의 좌측)에는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을,
좌측에는 마귀와 해골과 뼈를 비롯한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을 묘사
하였다. 양쪽 문설주에 새긴 위(천국)를 향하고 있는 인물들과 상인방의
'생각하는 사람' 우측(독자의 좌측)에 조각된 인물들은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과 성도들이고, 양쪽 문좌에 새긴 지옥으로 추락하는 인물들과
상인방의 '생각하는 사람' 좌측(독자의 우측)에 조각된 마귀와 해골과
뼈와 함께 한 인물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단테의
<신곡>에 따르면, 저주받은 영혼들은 카론의 바닥없는 소가죽 배에
싣려 지옥의 수문장 미노스에게 보내지게 되고, 미노스는 그들을 죄값에
따라 분류하여 9개의 등급으로 나뉜 지옥의 계곡들로 보낸다.



백보좌 심판(William Blake, 1808)


로버트 블레이크의 시 '무덤' (The Grave)에 삽입된 삽화로써
 독자의 좌측은 구원 받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천성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독자의 우측은 저주 받은 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다.



최후의 심판(Viktor Mikhaylovich Vasnetsov, 1904, 러시아)

독자좌측은 구원 받은 성도들이 천사들의 나팔소리에 무덤에서 부활하여
 천성에 오르는 모습이고, 독자우측은 저주 받은 자들이 불못에 떨어지는 모습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 우리가 **계시록에서 꼭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 그것은 **인간이나 사탄은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이다.**

- 피조물은 영원한 운명, **마이너스 1(7-1)의 존재(666)**이다.
자신이 아무리 잘났다고 뛰어 봤자 벼룩에 지나지 않는다.
-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777)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 갈 수도 없다.**
- 피조물이 사는 길은 **플러스 1(7+1)의 존재되신 예수(888)**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 그러므로 사탄과 하나님과의 전투는 실제로 있을 수도 없고, **사탄이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도 없다.**
- 계시록이 비록 전투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쟁이 없다.
- **하나님의 어린양, J장군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군사들은** 갑옷이나 **군복대신 흰인 예복**을 입고 있다.
- 어린양 예수의 대적자들은 총칼에 의해서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J장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위엄 있는 말씀으로** 멸절되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 일찍이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실 것이다.
- 처음부터 사탄은 게임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사탄은 단 한 명의 천사에 의해서 단 하나의 쇠사슬에 묶이고 마는 힘없는 존재**이다. 그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표절하고 가장한다**. 그러나 그는 **운명적으로** 유황으로 타는 불 못에 들어가야 할 **마이너스 1의 존재(666)**에 불과하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 그러므로 7-19장에서 **왜 교회와 성도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가**를 ‘나팔재앙, 대접재앙, 성도들의 삼년 반 기간의 시련, 그리고 음녀와 바벨론 멸망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 **한 때** 시련을 겪었으나 **하늘의 영광을 차지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 **한 때** 돈과 세상 권력을 쥐고 성도들을 박해하며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과 영원히 타는 유황불 못에 던짐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 마지막으로 계시록 20-22장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긴 성도들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를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 첫째,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사는 곳이다.

-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하셨지만,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새 하늘과 새 땅

- 인간들이 기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존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보일 수가 없었다.
-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모든 인간은 기록한 몸으로 변형된 완전한 모습을 갖춘 깨끗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성도들의 집과 함께 있게 되며,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살게 된다(계 21:3-4).



둘째, 하나님이 친히 빛을 비추는 곳이다.

-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고, 해와 전기가 필요 없는 곳이다(계 22:5).

요한계시록 21장 1-8절

➡ 셋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계 22:1), 생명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곳이다(계 22:2).

- 새 하늘과 새 땅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 곳이다(계 7:16).
- 정리해고나 부도 따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

➡ 넷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사 65:18).

- 새 하늘과 새 땅은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다(계 21:4).

요한계시록 21장 1-8절

➡ 다섯째, 정의롭고 평화로운 곳이다.

- 새 하늘과 새 땅은 해함 없이 상함이 없고(계 22:3; 사 65:25),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이다(계 21:4).
-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놀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 곳이다(사 65:25).

➡ 여섯째, 깨끗하고 건전한 생각만 하는 곳이다.

-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의 실수나 잘못이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 곳이다(사 65:17; 계 21:4).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일곱째, 성도들이 세세 무궁토록 왕 노릇 하는
곳이다(계 22:5).

- 새 하늘과 새 땅은 남에게 지배를 받거나 고용 당하지 않는 곳이다.
- 새 하늘과 새 땅은 **이토록** 좋은 곳이다.
- 그러나 **아무나** 막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
- **돈 많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 **머리 좋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 **잘났다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첫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시련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신다.

- “처음행위를 가지라”(2:5).
- “죽도록 충성(신실)하라”(2:10).

- “회개하라”(2:16).
- “굳게 잡으라”(2:25).
-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3:3).
-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3:11).
- “네가 열심을 내라”(3:19).

이긴 자들에게 주어질 상급



-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먹게 하리라”(2:7).
-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2:11).
-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주겠다”(2:17). “새벽별을 주리라”(2:28).
- “이기는 자는 ...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3:5).
-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3:12).

요한계시록 21장 1-8절

-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3:21).
-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21:7)고 했다.



둘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고 했다.

➡ 셋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계 7:14).

-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고 했다.
- ‘어린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다’는 뜻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얻는다는 뜻이다.

➡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충실히 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놀라운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미래가
보장된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다.
현재에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보장된
미래가 있기에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이다.

최후
승리자

요한계시록 이야기

승리자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21:9-22:21

[21:9]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10]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12]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 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 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요한계시록 21:9-22:21

[21:13]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14] 그 성의 성곽에는 열 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 두 사도의 열 두 이름이 있더라.

[15]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16]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요한계시록 21:9-22:21

[21:17] 그 성곽을 측량하며 백사십사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18]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0]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요한계시록 21:9-22:21

[21:21] 그 열 두 문은 열 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2]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23]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24]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5]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 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요한계시록 21:9-22:21

[21:26]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7]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1]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 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1:9-22:21

[22:3]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6]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요한계시록 21:9-22:21

[22: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8]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10]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 21:9-22:21

[22:11]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4]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 21:9-22:21

[22:15]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1:9-22:21

[22:18]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20]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1:9-22:21

거룩한 성 예루살렘

- 9절에서 대접재앙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말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10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신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구원이 완전히 성취된 **성도들 곧 그리스도의 교회**를 뜻한다.
- 11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21:9-22:21

거룩한 성 예루살렘

- 12-14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 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 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 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 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 두 사도의 열 두 이름이 있더라”고 했는데,
- 이것은 광야 성막시대에 대제사장이 착용했던 12부족을 상징하는 12보석으로 장식한 홍패와 이스라엘 12부족의 동서남북 진영 배치도에 잇대어져 있다.

흉패 The Breast Plate

출28:15~29, 39: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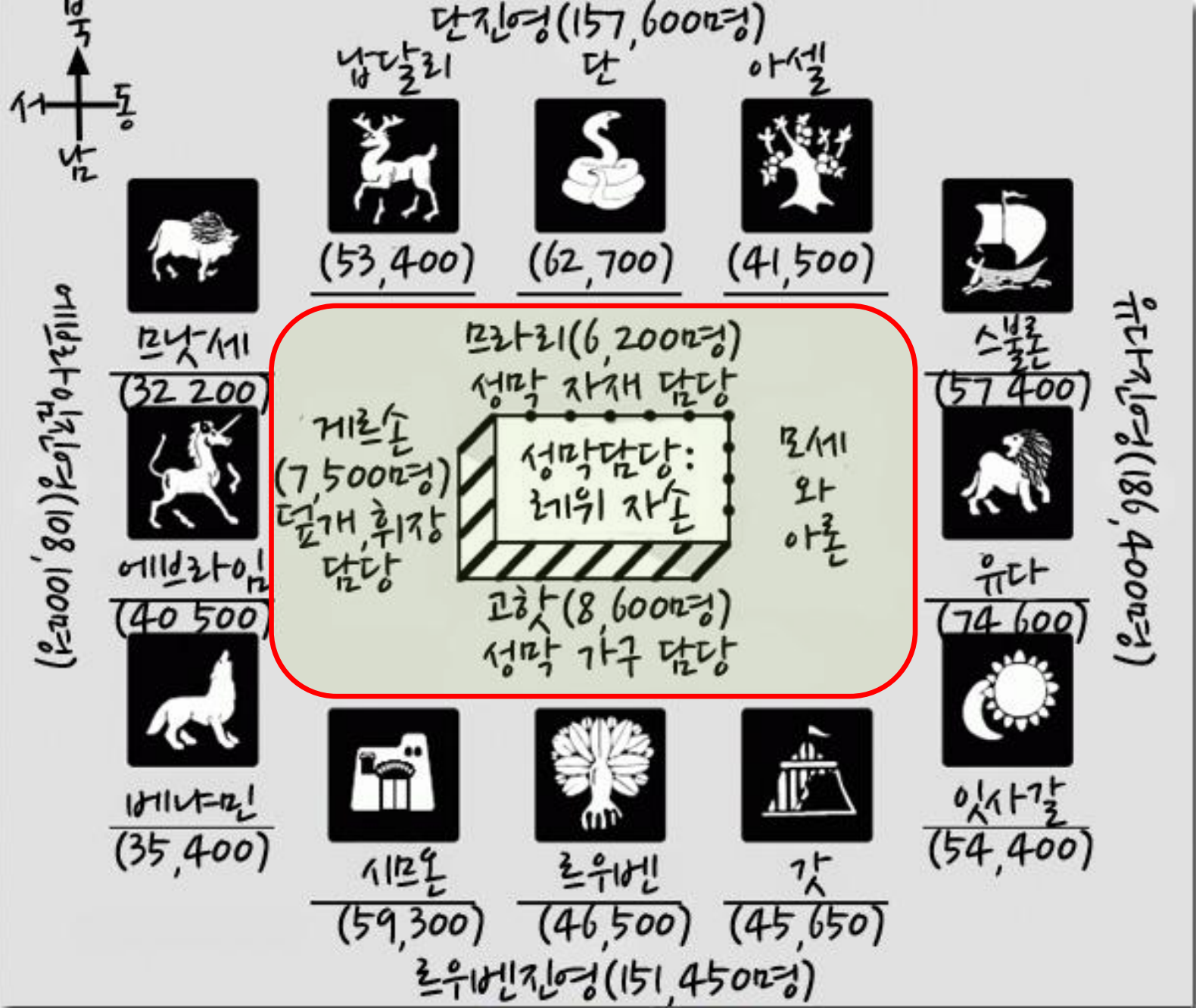
흉패에 새겨진 12지파 순서

- ① 유다 (홍보석, Sard)
- ② 잇사갈 (황옥, Topaz)
- ③ 스블론 (녹주옥, Carbuncle)
- ④ 르우벤 (석류석, Emerald)
- ⑤ 시므온 (남보석, Sapphire)
- ⑥ 갓 (홍마노, Diamond)
- ⑦ 에브라임 (호박, Ligure)
- ⑧ 므낫세 (백마노, Agate)
- ⑨ 베냐민 (자수정, Amethyst)
- ⑩ 단 (녹보석, Beryl)
- ⑪ 아셀 (호마노, Onyx)
- ⑫ 남달리 (벽옥, Jasper)

• 표시는 선임 지파임

대제사장(Kohen Gadol)의 예복(출 28장)





이스라엘 12부족의 진영 배치도 (민 2-3장)

요한계시록 21:9-22:21

거룩한 성 예루살렘

- 또 15-17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이천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백사십사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에서 그 성이 네모반듯한 이유는 광야시대에 이스라엘 12부족이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3개 부족씩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펼쳤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1:9-22:21

거룩한 성 예루살렘

- 동서남북의 성곽에 각각 성문이 세 개씩인 이유도 부족별로 한 개씩 문을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문 위에 이스라엘 12부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했다.
- “그 성의 성곽에는 열 두 기초석이 있고,” 또 성의 기초석이 12가지 보석으로 된 이유도 12가지 보석들은 각각 12부족을 상징한 보석이므로 12부족의 진영배치에 따라 그 기초석을 그 부족의 보석으로 놓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그 보석들은 각각 12사도를 상징한 것으로써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 두 사도의 열 두 이름이 있었다.”고 했다.



겔48:32-33

Griun So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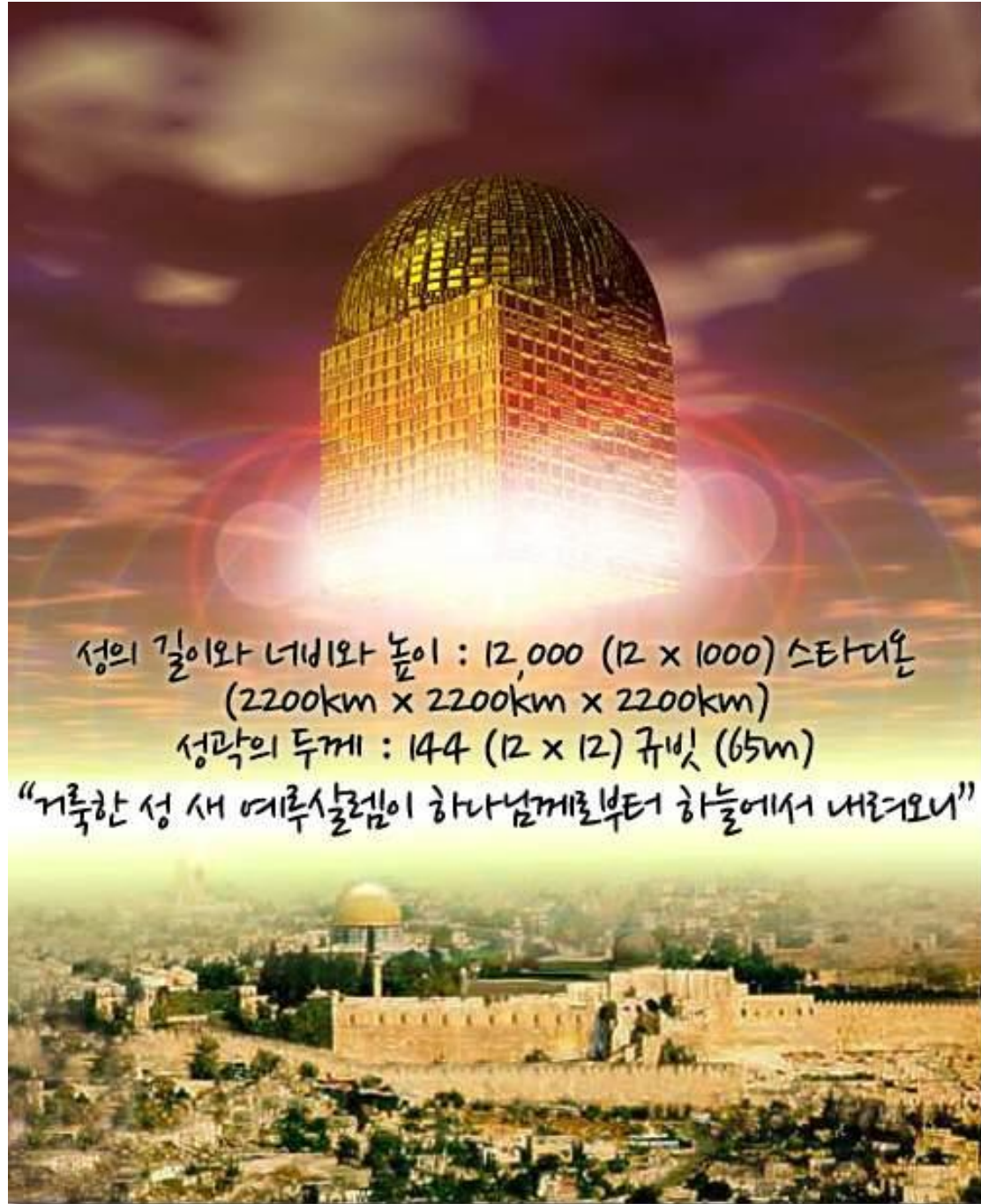


- 12. 자장: 바울
- 11. 청옥: 시몬
- 10. 비취옥: 다대오
- 9. 담황옥: 아고보
- 8. 녹옥: 마태
- 7. 황옥: 도마
- 6. 홍보석: 바들로매
- 5. 홍마노: 임립
- 4. 녹보석: 요한
- 3. 녹수: 아고보
- 2. 남보석: 안드레
- 1. 벽옥: 베드로

요한계시록 21:9-22:21

거룩한 성 예루살렘

-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만 이천 스타디온”이라고 하였는데, **2,200킬로미터**에 해당된다. 또 성곽의 두께가 “백사십사 규빗”이라고 하였는데, **65미터** 정도에 해당된다.
 - 그러나 이 길이와 두께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이므로 “**천사의 측량이라**”고 하였다.
- **1,2000 = 12 X 1000** 곧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12부족 또는 12사도에다 ‘무한’ 또는 ‘영원’을 상징하는 1000이 곱해진 것이다.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 : 12,000 (12 x 1000) 스타디온
(2200km x 2200km x 2200km)

성곽의 두께 : 144 (12 x 12) 큐빗 (65m)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의 상상도

요한계시록 21:9-22:21

거룩한 성 예루살렘

- **하나님의 백성의 영원성**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상징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원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44규빗도 12x12 곧 12부족과 12사도를 곱한 숫자이다.
- 또 **18-21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 둘째는 남보석이요,
- 셋째는 옥수요,
- 넷째는 녹보석이요,
- 다섯째는 홍마노요,
-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 일곱째는 황옥이요,
- 여덟째는 녹옥이요,
-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 열째는 비취옥이요,
- 열한째는 청옥이요,
-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홍패 The Breast Plate

출28:15~29, 39:8~21



- 홍패에
- ① 유다
- ② 잇사갈
- ③ 스블론
- ④ 르우벤
- ⑤ 시므온
- ⑥ 갓 (홍)
- ⑦ 에브라임
- ⑧ 므낫세
- ⑨ 베냐민
- ⑩ 단 (녹)
- ⑪ 아셀
- ⑫ 남달리



- 12. 자장: 바울
- 11. 청옥: 시몬
- 10. 비취옥: 다대오
- 9. 달항옥: 아고보
- 8. 녹옥: 마태
- 7. 황옥: 도마
- 6. 홍보석: 바블로매
- 5. 홍마노: 빌립
- 4. 녹보석: 요한
- 3. 녹수: 아고보
- 2. 남보석: 안드레
- 1. 백옥: 베드로

• 표시는 ori

요한계시록 21:9-22:21

거룩한 성 예루살렘

- **그 열 두 문은 열 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고 하였는데, 이 **12가지 보석**들은 **12부족**을 각각 상징하는 보석들이다.
-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고 했는데, 정금의 순도가 매우 높아서 마치 맑은 유리처럼 빛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12개의 문**은 각각 커다란 한 개의 **진주**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요한계시록 21:9-22:21

거룩한 성 예루살렘

- 또 22-23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했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광야 성막시대에서 보았던,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배치한 이스라엘 12부족 중앙에 설치되었던, 성막이나 성전이 필요 없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 민족색깔 성별계급 빈부귀천의 답이 없는 곳, 심지어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답이 없는 곳임을 말한다.

요한계시록 21:9-22:21

거룩한 성 예루살렘

-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또 성막이나 성전의 성소를 밝혔던 메노라가 필요 없게 될 것도 말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했다.
-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을”만큼 훨씬 더 좋은 빛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1:9-22:21

거룩한 성 예루살렘

- 24-27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하였다.



-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과 밋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22:1).
- 강 좌우에 달마다 열 두 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데 쓰인다(22:2).



-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7:16).
-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사람과 함께 사는 곳이다(22:3).



-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사 65:18).
-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다(21:4).
-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친히 빛을 비추는 곳이다. 밤이 없고, 해와 전기가 필요 없는 곳이다(22:5).
-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곳이다.



-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고, 저주가 없고(22:3; 사 65:25),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이다(21:4).
- 이리와 어린양이 함께 놀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 곳이다(사 65:25).



-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전의 실수나 잘못이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 곳이다(사 65:17; 계 21:4).
-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모든 성도들이 세세 무궁토록 왕 노릇 하는 곳이다(22:5).
- 남에게 지배를 받거나 고용 당하지 않는 곳이다.



-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긴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극히 아름답고, 튼튼하고,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으며, 빛나는 보석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보호받으며 안식하게 된다.



- 그러나 이곳에 들어갈 특권, 곧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22:14) 위해서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지키는 자”여야 한다(22:7).
-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이어야 한다(22:14).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시련을 극복해야 한다.
-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



-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 지금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장된 미래가 있기에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무상으로 주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 별”이신 예수님은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22:17)고 초청하신다.



-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다.
-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이 약속을 굳게 믿고 화답할 수 있어야겠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최후승리



최후승리

요한계시록 이야기

승리자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22:17-21

[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18]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22:17-21

[19]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20]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고신대 송영목 교수는 ‘초대교회 예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신약성경 중에서 **요한계시록**은 아마도 히브리서를 제외하면 가장 **예전적인 책**일 것이다. 이 사실은 계시록이 종종 구약의 성전을 언급하고(11:1,2,19; 14:15,17; 15:5; 16:17), 언약궤(11:19), 제단(6:9), 메노라(1:12,20), 향(5:8; 18:13), 연기(18:9,18), 나팔(8:2), 대접(16:1), 24장로(4:10; 5:14) 등을 언급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어린 양’(5:6,7,8), ‘거문고’(5:8; 14:4; 15:2-3), 그리고 ‘세마포’(15:6; 19:8,14)와 같은 용어는 문맥에 따라서 예전적인 함의를 담고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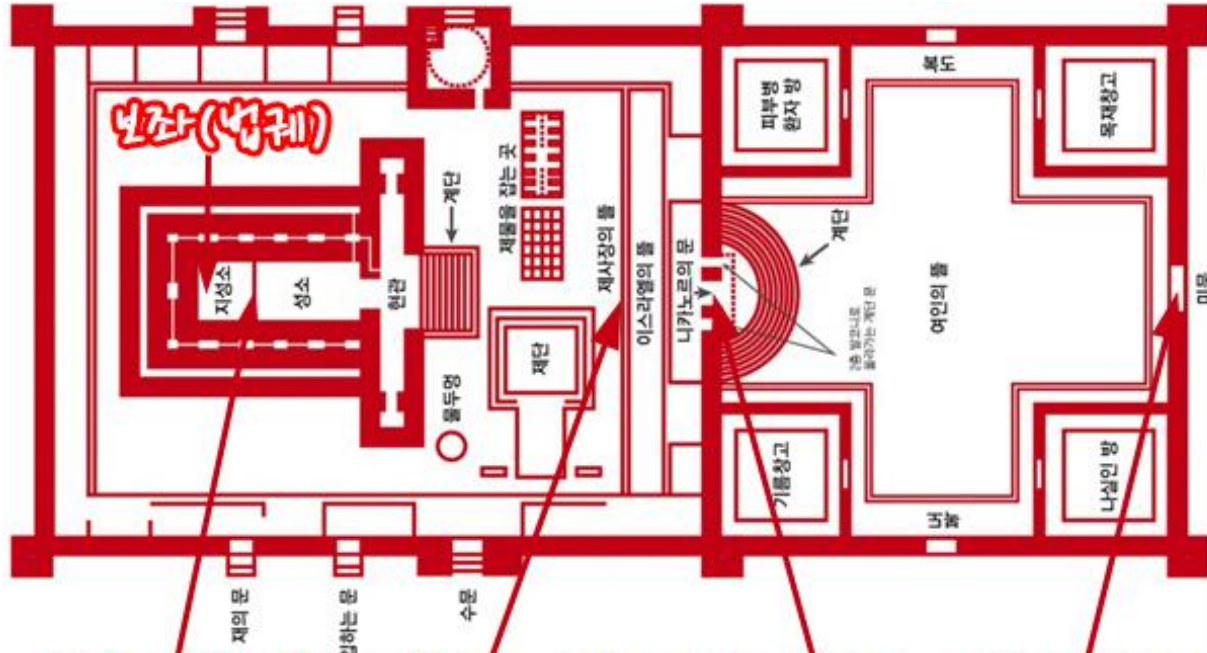
- 계시록에 쓰인 용어들은 **성전예배**에 관련된 것들이다. 계시록에 나타난 **천상예배**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드린 **지상예배**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계시록은 **초기 그리스도교 예전(예배의식)**을 **예배의 원형(antitype)과 실체(entity)인 천상예배**라는 관점을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스도교 예배=참 예배

- 주의 날(일요일, 1:10)에 큰 목자(목사)이신 ‘인자 같으신 이’의 입장과 인사 및 영광송(1장)으로 시작해서 죄 점검(2-3장), 천상의 네 생물 (케루빔)과 24장로들과 천군천사들의 찬양(4-5장), 두루마리 (성경책)의 받들고 펼침(5-6장), 천상의 성도들의 찬양(7장),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권면과 회개 촉구(설교, 8-13장), 천상의 성도들의 찬양(14:1-15:5), 강도 높은 권면과 회개 촉구(반복된 권면, 15-18장), 어린양의 혼인 잔치(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자들의 행렬(19장), 주의 만찬 설교(20-22장), 주의 만찬에로의 초대(‘마라나타’; 22:17-20) 그리고 축도(22:21)로 마치고 있기 때문이다.
- **천상의 예배에서의 특징에는** 예배를 받으시는 보좌 (법궤)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 그리고 네 생물과 24장 장로 및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선 천상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담(휘장)이 없다**(참고: 히 10:19-20; 4:16).



계급의담(휘장), 신분의담, 성별의담(니카노르문), 민족의담(미문)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육체가 찢기신 것을 휘장이 갈라져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로 통합된 것에 비교하였다. 성전은 우주의 축소판이고 성소 휘장은 지상의 모든 담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성소 휘장이 갈라진 것은 지상의 담들 곧 이방인을 차별하는 민족의 담, 여성을 차별하는 성별의 담, 신분의 담 및 계급의 담이 허물어졌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분이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또 기록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21:22)이기 때문에 성막이나 성전이 필요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서와 같은 민족색깔(민족의 담: 미문), 성별계급(성별의 담: 니카르노 문, 신분의 담(제사장의 뜰) 및 계급의 담: 지성소휘장), 빈부귀천의 담(문)이 없다.
- 기록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사람과 함께 살기 때문에(22:3) 심지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없다. 이것이 참 교회의 본질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신약성경에는 꽤 많은 기도문과 찬양이 담겨 있다. [참고: 조동호, 〈성만찬 예배〉(은혜출판사, 1995: 55-62)].
- 그 가운데 아람어로 보존된 ‘마라나타’는 주의 만찬에로의 초대 때 외친 주님의 재림을 기원하는 기도문이었다.
- 이 기도문이 **계시록에서는 헬라어로** 번역되어 나타났고, **고린도교회에서는 아람어 그대로** 쓰였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요한계시록이** 은총과 평화를 비는 인사말(1:5-6)에서부터 ‘마라나타’로 끝맺는 기도와 마지막 축사(22:20-21)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의 예배의 관례를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계시록보다는 40년 먼저 기록된 **고린도전서 16장 20-24절에** 나타난 **평화의 입맞춤과 마라나타 그리고 축도로 구성된** 마지막 인사말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주의 만찬 예배의 일부분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따라서 **고린도전서 16장 20-24절은** 다른 증거들과 함께 **초대교회의 예배를 재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주의 만찬 제정사와 관련된 몇 개의 성구들은 ‘성찬 봉헌’, ‘주의 만찬 기도’, ‘분병례’, 간단한 ‘주의 만찬 설교’ 그리고 ‘성찬배수’로 이어지는 예배를 짐작케 하기 때문이다.
- 또 이들 성구들은 고린도전서 11장 23-24절,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4장 30절, 마가복음 14장 22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6절로써 한결같이 “떡을 가지사(봉헌), 축사하시고 (주의 만찬 기도), 떼어(분병례), 주시며(성찬배수/聖餐拜受), 가라사대(교훈)”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신약성경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증언들을 종합해서 **예배순서를 재구성**해 볼 경우, **예배는 제1부 말씀 예배, 제2부 주의 만찬 예배로 나뉜다.**
- 먼저 **말씀의 예배는** (1)성경봉독(바울 서신의 봉독), (2)집례자의 설교, (3)기도, (4)찬송시(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 **참고: 츠빙글리와 칼뱅-예배시 무악기 주장/엡 5:16; 골 3:16; 고전 14:26)**로 구성될 수 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주의 만찬 예배는** (1) 봉헌(“떡을 가지사”), (2) 주의 만찬 설교(“가라사대”), (3) 주의 만찬 기도(“축사하시고”, 고전 10:16), (4) 주의 기도(마 6:9-13), (5) 인사와 평화의 입맞춤(고전 16:20-24), (6) **주의 만찬에의 초대**(고전 16:22: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라나타.” 이 구절은 **주후 100년경에 쓰인 <디다케> 10장에** 나온 “사람아, 만일 기록하면 오라. 기록하지 않으면 회개하라. 마라나타. 아멘”과 거의 비슷하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7)분병례와 참여(“떼어 주시며”), (8)헌금, (9)축도(고전 16:23-2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로 구성될 수 있다.
-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마라나타’**라는 아람어 기도문이 **보존**되어 있다.

ܡܪܢܬܐ
Marana tha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 아람어 ‘마라나타’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다.
- **<디다케>(10:6)**에 따르면, 이 말은 **주의 만찬예식 마지막에** 드러지던 **기도문**이었다.
- 이 기도문이 헬라어로 번역되지 않고 아람어로 그대로 고린도교회에 전승되었다는 점과 100년경에 기록된 <디다케> 역시 아람어 전승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점은 **주의 만찬 예배의 예루살렘 기원을 입증**하는 것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또 ‘마라나타’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만찬제정사**와도 연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전 11:23-25]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로빈슨(J.A.T. Robinson), 리츠만(H. Lietzmann), 그리고 보른캄(G. Bornkamm)과 같은 학자들은 이것들이 “최초의 그리스도교 예배순서의 흔적”이라고 주장하였다.
-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도 자신의 〈예배학〉(Worship: Old and New) 57쪽에서 “**고린도전서 16:20-24**는 ‘서신의 절미를 장식하는 상투적인 용법일 뿐 아니라, 한 예배 공동체가 다른 예배 공동체에 보내는 인사, 즉 성찬을 들기 위해 모인 성도들 간의 대화’이다.”고 했고,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또 “그 기원이 바울 이전인, 최초의 기독교 예배의 순서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초기 신약교회의 예배의 기본 구조는 말씀과 주의 만찬에 강조점을 두고 이에 기도와 찬송이 수반되는 2부 구조였던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초기 그리스도교 예배를 예배의 원형(antitype)과 실체(entity)인 천상예배라는 관점을 반영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 예배=참 예배

최후승리

